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정 규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탄력성의 국내 연구 동향

- 가족탄력성과 학교적응유연성을 포함하여 -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임상심리전공
최 은 지

탄력성의 국내 연구 동향

- 가족탄력성과 학교적응유연성을 포함하여 -

김정규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임상심리전공

최 은 지

인 준 서

최은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1996년부터 2013년 중반기까지의 국내에서 발표된 탄력성에 대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선정된 석·박사 학위논문 832편과 학술지 논문 187편, 총 1,019편을 대상으로 발표연도, 탄력성 하위차원, 학문영역, 연구대상, 연구방법별로 정리하여 전반적인 경향 및 동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탄력성 증진을 위한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를 구별하여 발표연도, 연구대상, 개입의 특성, 연구방법의 동향을 조사·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표연도에 따른 동향을 보면 1997년부터 2013년 중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둘째, 탄력성의 하위차원 중 자아탄력성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으며 그다음으로 탄력성, 가족탄력성, 학교적응유연성 순이었다. 자아탄력성 척도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Block과 Kreman(1996)의 Ego-Resiliency Scale 이었으며, 탄력성 척도 중에는 이해리와 조한익(2006)의 척도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가족탄력성은 크게 Walsh(1998)의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한 것과 McCubbin과 McCubbin(1993)의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한 것으로 나뉘었는데, Walsh의 이론을 바탕으로 김미옥(2001)이 구성한 척도가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다. 학교적응유연성 척도로는 Hernandez(1993)가 개발하고 박현선(1999)이 수정, 보완한 검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셋째, 학문분야별 연구동향은 교육학분야가 42.3%로 가장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학(26.2%), 심리과학(15.0%), 의약학(8.1%) 순이었다.

넷째, 연구대상별 연구동향은 청소년(32.6%)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연구대상이 경험한 역경 중 가장 연구 빈도가 높은 것은 사회환경적 역경(45.7%)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연구방법으로는 조사연구방법이 80.3%로 현저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섯째, 탄력성 증진을 위한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는 2002년에 최초로 발표되었으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탄력성의 하위차원 중 자아탄력성이 종속변인인 연구논문이 70.3%로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을 보면, 아동(41.4%)과 청소년(36.9%)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가장 연구 빈도가 높은 역경경험은 임상 수준 미만의 심리적 문제(18.5%)로 나타났다. 또한 11명~20명 이하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개입 연구가 연구 초기부터 꾸준히 많았으며 1명~10명 이하의 소규모 집단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입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 2회기(45.9%)를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회기 당 30~60분(63.1%), 총 회기 수는 8~12회기(66.7%), 8시간 이상 16시간 미만(45.9%)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탄력성 증진을 위한 개입은 다양한 이론적 배경과 도구로서 접근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입에서 탄력성 외 종속변인은 사용되지 않았던 경우(35.1%)가 가장 많았다.

연구설계는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55.9%)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자료의 분석방법으로는 t-test 가 29.7%의 비중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방법으로 밝혀졌다.

요컨대, 본 논문에서는 탄력성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현재의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탄력성,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학교적응유연성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문제 4

II. 이론적 배경

- 1. 탄력성의 출현배경과 연구 5
- 2. 탄력성의 이론적 관점 8
 - 1) 정신분석학적 관점 9
 - 2) 발달정신병리학적 관점 11
 - 3) 발달적 맥락주의 관점 14
- 3. 학교적응유연성 16
- 4. 가족탄력성 17
 - 1) McCubbin의 가족스트레스, 조절, 적응의 탄력성 모델 18
 - 2) Walsh의 가족탄력성 모델 21

III. 연구 방법

- 1. 분석 대상 24
- 2. 분석 기준 24
- 3. 자료 분석 방법 27

IV. 연구결과

- 1. 발표연도에 따른 연구동향 28

2. Resilience의 하위차원 및 사용된 척도 경향	30
3. 연구자 전공별 분류	37
4. 연구대상에 따른 동향	
1) 발표연도에 따른 연구대상 동향	41
2) 연구대상 및 역경경험	43
5. 연구방법의 경향	
1) 연구방법	46
6. 탄력성 증진을 위한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의 동향분석	
1) 발표연도에 따른 연구대상 동향	48
2) 연구대상의 동향	49
3) 개입의 운영특성	53
4) 연구방법	57

V. 논의

1.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60
2.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62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분석대상 논문목록

표 목 차

<표 1>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소	11
<표 2> 논문분석틀	24
<표 3> 탄력성 증진을 위한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논문 분석틀	26
<표 4> 발표연도별 연구 편수	28
<표 5> 연구논문의 탄력성 하위차원	30
<표 6> 연도별 탄력성 하위차원 연구	31
<표 7> ego-resilience, family resilience, academic resilience 용어사용	32
<표 8> 탄력성 하위차원별 사용 척도	33
<표 9> 연구자 전공별 학문분야 분류기준	37
<표 10> 학문분야별 연구	40
<표 11> 발표연도 및 연구대상에 따른 연구동향	41
<표 12> 연구대상의 역경경험 분류	44

<표 13> 연구방법	47
<표 14>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의 탄력성 하위차원별 동향	49
<표 15> 개입의 연구대상 수	50
<표 16>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의 발표연도 및 연구대상에 따른 동향	49
<표 17>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의 연구대상별 역경경험 분류	52
<표 18> 개입의 기본사항에 대한 분석	53
<표 19> 탄력성의 하위차원별 개입분석	54
<표 20>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 설계와 자료의 통계분석	59

그림 목 차

<그림 1> 발표연도별 연구 현황	30
<그림 2> resilience 용어사용	38
<그림 3> 석·박사 학위논문의 연구자 전공에 따른 학문영역	38
<그림 4> 발표연도 및 연구대상에 따른 연구동향	43
<그림 5> 연구의 대상별 역경경험	44
<그림 6>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 동향	47
<그림 7>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의 대상별 역경경험	52
<그림 8>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의 발표연도별 연구 설계방법	5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탄력성(resilience)은 1970년대 이후에 연구되기 시작하여 1990년 이후 주목받게 되었다(Craig, Lyndal & Jane, 2003). 이 개념이 국내에 소개된 것은 부각되기 시작한 이후인 1990년대인데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간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며 활발한 논의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탄력성 패러다임 토대는 아동과 성인이 스트레스, 정신적 외상, 삶의 위기로부터 어떻게 회복되는가에 관하여 신경의학, 심리학 및 사회학 분야에서 등장한 매우 새로운 관점이다(Henderson & Milstein, 2008).

지난 50년간 정신건강 분야를 주도해온 것은 인간발달의 병리학에 기초한 질병모델로서, 이 모델은 심리적 문제가 신체적 질병과 같은 속성을 지닌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질병을 초래하는 물질적 실체나 결함을 제거함으로써 심리적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여겼다. 때문에 질병모델은 손상과 결함에 초점을 두고 이를 찾아서 다루고자 하였으며 또한 아동기의 외상이 성인 병리의 전조 증상이거나 예측요인이라고 보았는데, 그 결과 다양한 정신장애의 원인에 대한 이해가 증대되었고 1950년대 초까지 적절한 치료방법이 없었던 주요한 정신장애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이 다양하게 개발되었다(권석만, 2008).

그러나 심각한 정신적 외상이나 역경, 위협적 환경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행동 및 정서 문제를 보이지 않는 연구결과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연구결과에 주목하여 결함에 초점을 두는 대신 ‘왜 높은 위험군의 어떤 개인들은 유사한 배경의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보일 때에도 긍정적인 발달을 이루는가.’ 그리고 ‘무엇이 잘 되었는가.’

를 조명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역경이나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능력 혹은 성공적인 적응을 뜻하는(Rutter, 1985) 탄력성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탄력성 연구는 기존의 질병모형과는 달리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제공하며, 인간의 잠재능력에 대한 인정과 관심으로 강점과 능력을 파악하고 축적, 강화시키고자 한다. 또한 탄력성의 연구결과에서 도출되는 이론과 지지 전략으로서 대상자를 도울 수 있다(권석만, 2008).

역경이나 어려움이 인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부정적 상태로 가기 쉬운 특성에 초점을 두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는 일종의 학술적, 사회적인 낙인 혹은 고정관념이다. 학술적인 초점이 병리에 맞추어져 있다면 사회적인 사람들의 인식도 그렇게 된다. 이런 경우 회복해야 할 과제는 두 가지가 되는데, 역경에 대한 상처의 직접적인 결과의 복원과 주위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주는 학술적, 사회적 표상에서 오는 상처에 대한 복원이다(Cyrułnik, 2002).

Benard(1991)는 사람들이 탄력성에 관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문제나 결점을 찾을 때처럼 탄력성의 신호를 세밀하게 탐색한다면, 탄력성의 특성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Wolin & Wolin(1993)은 역기능적으로 보이는 행위조차 사실은 탄력성의 요소를 포함할지 모른다고 지적하며, 긍정적인 요소를 포함하도록 재명명하며 탄력적인 행위를 자주 지적하고 칭찬할 것을 권장한다. 위험 상황에서도 긍정적 적응상태를 보이는 대상에 대한 경험적 증거들과 위험요소를 감소시키는 개입보다는 대상자의 강점을 파악하여 키우는 것이 적응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박현선,1999; Cicchetti, Rogosch, Lynch, & Holt, 1993; Fergusson & Lynskey, 1996;Holaday & Terrell, 1994)들이 관점변화의 이점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또 많은 학자들과 임상가들이 질병모델로는 예방에 있어서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는데(Catalano, Berglund, Ryan, Lonczak, & Hawkins,

1998) 손상과 결함에 대한 이론과 치료기법은 예방활동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권석만, 2008). 반면 탄력성 연구는 연구결과에서 도출되는 이론과 지지 전략으로서 개인의 강점을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문제를 야기하거나 지속, 심화시키는 위험요인과 위험을 완충시키거나 예방하는 보호요인을 파악하고 보호요인을 사전에 강화시키는 등의 전략으로 예방을 위한 개입이 가능하다. 이는 개인적인 입장이나 국가적인 입장에서 심리적 고통과 재정적인 부담의 절감의 가능성을 나타낸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가능성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박은희(1996)의 논문을 시작으로 개인의 심리사회적 능력을 의미하는 자아탄력성과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탄력성, 과정으로서의 탄력성 그리고 단일차원에 중점을 둔 가족탄력성, 학교적응유연성 등이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탄력성 개념이 소개된 이후 10년이 채 되지 않았으나 발표된 연구논문의 수는 1000편을 넘어서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같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연구의 경향이나 동향에 대해 알아보려는 노력은 미진했다는 것이다. 탄력성의 국내 동향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전인경(2009)의 연구가 있으나 분석대상이 탄력성의 영향을 받는 변인을 연구한 논문으로 국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족탄력성, 학교적응유연성 등의 세분화된 개념의 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연구의 분석이 2009년까지의 연구에 대한 것이므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는 알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표된 탄력성에 대한 연구를 체계화하고 정리하며 경향과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Brown(1969)은 “각 학문이 어디에서 왔고, 현재 어디에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이켜 보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고 하였다. 동향 연구는 미비한 연구 분야를 파악하고, 특정주제에 관한 연구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이후 학문이 체계적인 발전을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김광웅 등, 2006). 또한 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학문 연구기간

에 비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의 흐름을 고찰하며 학문적인 성과를 파악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탄력성 연구가 시작된 1996년부터 2013년 중반까지의 국내 탄력성 학위논문과 학술지 발표논문을 통하여 탄력성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탄력성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대상 연구들을 ①발표연도, ②탄력성 차원, ③학문영역, ④연구대상 ⑤연구방법의 전반적인 경향 및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탄력성 증진을 위한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를 구분하여 ①발표연도, ②연구대상, ③개입의 특성, ④연구방법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탄력성에 대한 연구의 현재를 재조명하며 향후 후속연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1996년부터 2013년 중반까지의 국내에서 발표된 탄력성 관련 학위논문 및 학술지 발표논문을 통해서 다음의 연구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1. 탄력성에 대한 연구의 연도별 발표 논문 수는 어떠한가?
2. 탄력성의 하위차원에 따른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명칭사용의 현황이 어떠한가?
3. 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어떤 학문영역에서 진행되어 왔는가?
4. 탄력성 연구의 연구대상의 특성은 어떠한가?
5. 탄력성에 대한 연구의 연구방법의 경향이 어떠한가?
6. 탄력성 증진을 위한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의 동향이 어떠한가?
(발표연도, 연구대상, 개입의 특성, 연구방법)

II. 이론적 배경

탄력성은 라틴어의 ‘salire’와 ‘resilire’에서 유래된 말로 어원상 ‘회복’ 혹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탄력성(resilience)이라는 단어는 처음에는 물리학에서 쓰였는데, 충격에 저항하는 물체의 힘 또는 물체의 신축적 혹은 유연한 성질을 의미한다. 탄력성의 사전적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튀어 오르는 행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변형된 물체가 이전의 크기와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능력, 탄력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은 압력의 범위 내에서 탄성체가 회복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라고 정의된다(Webster, 1986). 탄력성은 다양한 학문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생태학과, 미생물학, 세포 재생, 소재 처리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영, 경제 또 공학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다(Marie, 2007).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탄력성은 인간발달 과학에서의 탄력성을 의미하며 ‘인간이 변화나 역경에 쉽게 적응하거나 회복하는 능력’(Webster, 1983), ‘질병, 충격, 역경으로부터 빨리 회복되는 힘’(Oxford, 1995)으로 정의된다.

본 장에서는 탄력성 개념의 출현배경과 연구의 진행을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각 관점에 따른 탄력성을 다루고자 한다. 또한 탄력성의 하위차원 중 비중 있게 연구되고 있는 가족탄력성과 학교적응유연성(학업탄력성)을 살펴보았다.

1. 탄력성의 출현배경과 연구

탄력성의 개념은 위협에 대한 연구들로부터 발생되었으며 시간에 걸쳐서 발전되었다. 위협(Risk)은 “발병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더 심각한 상태로 만들거나 또는 문제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영향들“이다.(Kirby & Fraser, 1997, pp.10-11). 그리고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들과 관련된 변인을 위협요인이

라고 한다(Luthar,1991;Masten,2001). 이러한 위험요인들은 다양한 정신적 문제와 부적응을 일으키며, 특히 위험요인에 대한 복합적인 노출은 문제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발달에 위험한 영향을 미친다.

탄력성과 관련된 초기의 연구는 유아기애착에 주된 관심을 둔 Bowlby와 Spitz(1946)의 연구를 포함한다. 이 연구는 생후 첫 몇 개월 동안 모성결핍이라는 위험을 겪을 경우 영아에게 일어나는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Spitz(1946)는 여기에서 회복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 “만약 영아에게 어머니를 되찾아주거나 받아들일 만한 대용물을 찾아준다면 문제는 놀랄 만큼 빨리 사라진다”(Cyrulnik, 2002)

1950~1980년대 연구자들은 '위험에 처한 아동'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이들 중에서 미래에 문제를 경험하는 아동의 비중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탄력성 연구인 하와이 카우아이 섬 종단연구를 비롯하여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미네아폴리스, 피츠버그, 로체스터를 포함한 미국의 수많은 도시에서 연구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졌다. 또한 브라질, 캐나다, 코스타리카, 체코, 헝가리, 일본, 러시아, 남아프리카, 대만, 타이, 베트남 등에서 국제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Grotberg,1995)

연구 결과 연구자들은 빈곤, 부모의 부재, 스트레스 등과 같은 위험요인이 항상 부정적인 발달 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으며, 위험요인이 많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적응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Rutter(1985)에 의하면 위험요소들이 겹쳐져도 그 심각성에 관계없이, 이것에 노출된 반 이상의 아동에게 의미 있는 장애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발달정신병리 및 정신건강 전문가들로 하여금 스트레스 상황이 불가피하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생각으로부터 역경 이후에 긍정적인 적응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탐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촉진하였다. 개입의 초점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즉, 결함(deficit)에서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해결해왔는가'로 이동되었고, 이러한 새로운 접근은 임상영역에서의 기술

적인 측면뿐 아니라 연구조사와 정책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적인 측면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등장한 개념들 중 대표적인 것이 resilience(탄력성) 라고 할 수 있다(Walsh & Crosser, C., 2000:301~324).

Werner(1983)는 고난과 역경을 잘 견뎌내면서 성장하는 아동들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이러한 아동들의 성격특질을 지칭하기 위해 탄력성(resiliency)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 단계에서의 주된 관심은 왜 동일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경험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해로운 영향 없이 견뎌내는가 였다. 탄력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사회적 능력으로 생각되었으며, 탄력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인간중심 접근(person-focused approach)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접근은 범주적 접근이라고도 하며 전통적인 인간중심 연구에서는 적응결과와 부적응 결과를 가진 동일한 고위험 샘플에서 도출된 두 개의 집단을 비교하였다. 변별분석, 군집분석, 변량분석, 단일사례 연구를 통하여 탄력적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차이를 검증한다(Masten, 2001). 그럼으로써 연구자들은 부적응 집단과 구별되는 탄력적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격이나 환경적인 내외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Richardson, 2002).

한편 탄력성을 개인의 속성이 아니라 개인이 가진 자원과 경험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보는 관점들이 등장하였다(김정민, 2010; Cicchetti&Valentino, 2006; Garmezy&Rutter 1985; Schoon, 2006).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역경에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위험요인과 역경에 대한 반응을 개선하는데 작용하여 위험을 완충시키거나 심지어 예방하기도 하는 보호요인을 평가하였다. 탄력성과 관련된 보호요인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Garmezy, 1991; Werner, 1989) 첫째 높은 인지적 능력, 긍정적 기질 같은 개인적 성향과 둘째 지지적 가족환경, 셋째 좋은 학교, 강한 사회적 관계망 등의 가족외적 사회 환경이다. 이 관점에서의 주된 연구방식은 변

수중심 접근(factor-focused approach) 연구로 차원적 접근이라고도 하며 탄력성의 발현을 돕거나 저해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상관분석, 회귀분석, 경로분석, 구조방정식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위험요인, 보호요인, 적응결과에 대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모델이다. 이는 다시 세 가지 모델로 나뉘는데, 위험과 장점이 적응에 미치는 독립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주효과(main effect)의 검증, 제 3의 변수에 의한 매개모델(mediation model), 중재변수에 의한 상호작용모델(interaction model)이다(Masten, 2001).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간의 상호작용이 탐색되면서 Masten(1987)은 위험요인들이 부정적 결과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부가적 모델(additive model)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역량(assets)이 감소된다. Rutter(1983)는 상호작용모델(interactive model)을 제안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탄력성은 상호교류적 현상으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은 사람의 성장에 따라 탄력성을 형성하기 위해 상호작용한다(Rutter, 1981,1987). Rutter의 이러한 관점은 생태학적 관점으로 연결되었다.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탄력적 현상은 개인-환경이 상호작용하는 맥락에서 발생하고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은 가족, 학교,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탄력성은 타고난 속성이나 후천적으로 획득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속성, 가족, 사회, 문화적 환경의 적절한 결합이라고 하였다(Rutter, 1987).

2. 탄력성의 이론적 관점

탄력성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에 따라서 탄력성에 대한 정의와 연구의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정신분석학적 관점

자아탄력성은 탄력성을 정신분석학적 관점 그리고 심리사회적 입장으로 본 것으로 개인내적 특성, 성격의 한 유형으로 간주한다. Block & Block(1980)은 탄력성의 개념과 구별하여 에고(ego)라는 접두사를 붙여 자아탄력성(ego-resilience)란 용어를 처음 소개하였다. 그들은 30년 종단연구를 통하여 유아기를 거쳐 청소년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자아통제와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일관되게 나타남을 보여줌으로서 자아탄력성은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나거나 일시적인 행동이 아닌 한 개인의 일반화되고 성격화된 특질임을 지적하였다(박원주, 이기학, 2008). Block(1982)은 자아탄력성이란 일시적이고 적응이 필요한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부터 다시 그 이전의 자아-통제 수준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되돌아갈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으로 보았다.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 하에서 융통성 있게 반응하는 자아-탄력적(ego-resilient)부분과 자아-취약한(ego-brittle)부분의 연속체로 보고 적절한 자아통제(ego-control)를 이룰 때 탄력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자아탄력성이란 상황의 요구에 따라 자아통제를 강화하거나 완화시키는 메타적인 능력을 의미하며 자아의 동기조절 능력과 인지적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기에서 자아통제는 충동이나 억제들을 충분히 역동적으로 조절하여 평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며, 정서적·동기적 충동을 내적으로 갖고 있거나 이를 표현하려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자아통제와 역전된 U-모양의 관계패턴을 보이는데, 과소통제하거나 과다 통제할 때 개인은 탄력적이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Block & Kremen, 1996). 과소통제란 충동의 조절이 불충분하여 보상을 지연시키는 능력이 부족하여 어떤 상황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환경적인 장애가 생기면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과다통제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통제를 하며 보상을 지연시키고 행동을 조심스럽게 해서 환경적인 장애를 차단하는 경향을 말한다.

한편 자아탄력성의 개인적인 속성으로 자아통제뿐만 아니라 '적응' 또한 주요하게 언급된다. Block & Kremen(1996)은 자아탄력성을 구성하는 개념 중 '적응'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아탄력성의 구조를 파악하였다. 적응(adaptation)의 특성에 대한 주요한 두 가지 접근이 있는데, 첫 번째 접근은 사회적 요구에 실용적으로 맞추는 것으로, 조절(adjustment)차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것은 증상의 부재 즉, 공공연한 문제가 없음을 의미하나 적응력(adaptability)과 심리적 건강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두 번째 관점은 적응을 증상의 부재로 바라보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자아강도, 정서적 안정성, 대처, 유능감 등 인간의 적응력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자하는 다양한 개념이 등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론적 개념으로 재정립한 용어중 하나가 자아탄력성 구조이다(Block, 1950, 1951).

자아탄력성을 개인내적 속성으로 본 정의를 학자별로 살펴보면, Fine(1991)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역경에도 견디어내는 심리사회적 능력으로 정의하고, 자아탄력성이 심리적인 혼란, 외적인 위협에 대처하여 효과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성공적인 적응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Bromley(2005)는 자아탄력성을 한 개인이 일상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과도한 스트레스에 직면하면서도 이를 잘 이겨내고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긍정적인 성격 특성이라 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유성경 외(2004)는 자아탄력성은 인간의 기질적인 특성으로서 유전적, 선천적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행동, 정서적, 인지적 특성을 반영하는 보다 원초적 개념, 이예승(2004)은 자아탄력성을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개인의 과정이나 능력, 김미현(2006)은 주어진 상황적 요구에 융통성 있게 반응하며 적극적인 해결력을 구사하는 개인의 역동적 성격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소들을 알아보는 것은 자아탄력적인 개인들의 구체적인 행동특성에 대한 연구 혹은 자아탄력성의 구체적인 평가와 관련하여 알아봄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선행연구자들이 밝힌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소는 <표1>와

같다.

<표 1>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소

연구자	구성요소
Block & Block(1980)	문제해결력, 성격의 안정성, 자신감, 적응력, 또래관계, 인지능력
O'connell-Higgins(1983)	활력성, 감정 통제 능력, 대인관계, 낙관성
Klohn(1996)	낙관성, 자율성, 생산적 활동, 대인관계
Block & Kremen(1996)	대인관계기술, 활력성, 감정통제, 낙관성, 호기심
Gerstner & Day(1997)	통제감, 자긍심,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
Kirkman & Rosen(1999)	통찰력, 독립성, 관계성, 주도성, 유머, 창의성, 도덕성
Atsushiet al(2002)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감정조절, 긍정적인 미래지향성
Conner & Davidson (2003)	강인함, 인내력, 낙관성, 지지, 영성
김승태 외(1997)	또래관계 및 자신감, 감정통제능력, 자기수용 및 낙관성, 가족관계
윤현희 외(2001)	또래관계와 낙관성, 공감과 자기수용, 집중력과 자신감, 이해심, 리더십
김지연(2011)	활력성, 긍정적 태도와 자신감, 효율적 회복력

한편 자아탄력성 개념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는데, Luthar & Cicchetti(2000)는 탄력성을 개인의 성격특성으로 간주할 경우, 그러한 성격특성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전가하게 됨을 지적하였다.

2) 발달정신병리학적 관점

발달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는 탄력성을 위협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달해 가는 역동적인 변화의 과정이며 개인의 변화하는 속성으로 본다(Rutter, 1985;Garmezy, 1993;Luthar, Cicchetti,& Becker, 2000;Masten, 2001). 이 관점에서 출발한 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Garmezy(1972)로부터 시작되었다. Garmezy는 높은 위협에 처한 개인들이 예상 외로 심리적 괴로움을 분명하게 나타내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탄력성을 역경과 성공적 적응 사이를 중재하는 요인으로서 보았다. 또 탄력성을 전 생애의 맥락에서 발달적 통합이 일어나는 순간마다 개인-환경 상호작용 맥락에서 시간에 걸쳐 변화하는 특성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탄력성은 선천적 요인들과 경험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시간에 걸쳐 발달하는 개인의 능력이나 기능이므로 특별한 능력이기보다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Masten(2001)은 어떤 사람이 탄력적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는 그 사람이 중대한 위협이나 역경에 노출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둘째는 그 사람이 최소한 보통의 또는 정상적인 발달 결과를 성취해야 한다. 이 입장은 탄력성을 사람과 환경 사이의 상황적 또는 시간적 상호작용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 뿐 아니라 가족·사회적 환경 측면을 고려한다(Cicchetti & Garmezy, 1993). 이와 같은 맥락에서 Yates, Egeland & Sroufe(2003)는 스트레스나 역경에 대해 각 개인이 나타내는 다양한 반응들 중에서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측면을 설명하고자 사용된 용어라고 하였다. 이처럼 역동적인 개념에서 보면 탄력성은 역경에의 노출을 전제로 한 긍정적인 적응능력으로 이해되기 때문에(임성숙, 김진숙, 2009), 세월의 흐름 속에서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Lundman, 2007). 다시 말해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역경과 위협에 처할 수 있으므로 탄력성은 특별한 대상의 특수하고 고정적인 속성인 것이 아니라 높은 위험환경,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고 기능하도록 유지하는 능력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적응기제이다(전지경, 2011).

또한 이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의 출현을 예방하고 탄력성을 촉진하는 보호요인의 개발과 중재에 관심을 갖는다(Werner & Smith, 1982). Rutter(1985)는 탄력성을 어려운 생애 사건의 영향에 대응하려는 행동을 포함하는 개인의 내·외적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사이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역동적 과정이라 하였다. 탄력성의 역동적인 관점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은 탄력성을 삼원체계(triarch framework)모델로 설명하고(Masten & Coatsworth, 1998), 위험요소와 보호요소들 간의 탄력성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한다(Cicchetti & Valentino, 2006; Prilleltensky, Nelson & Peirson, 2001; Wilkes, 2002). 이와 같이 발달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의 탄력성 연구는 탄력성을 저해하는 위험요인과 탄력성을 발달시키는 보호요인에 대한 분석, 그리고 예측변인과 적응 결과 간의 관계를 밝히는데 있어 통계적 검증력을 최대화하고 중재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Luthar et al, 2000) 최근의 연구는 심각한 역경의 유무를 떠나 탄력성을 증진시키는 예방적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다(Brooks & Goldstein, 2003).

탄력성이 개인의 심리사회적 속성인지 역동적인 과정인지에 관한 상반된 입장과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일부 종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탄력성은 개인의 안정된 속성이 아니라 발달단계에 따라 혹은 시간과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함께 변화, 감소되는 것으로 기술되었다(Werner & Smith, 1982; Fine, 1991; Herrenkohl et al, 1994). Fine(1991)은 탄력성은 생성, 유지, 소멸된다고 하였으며, Wolin & Wolin(1995)는 인간발달에 따라 탄력성의 요인적 특성도 변화된다고 하였고, Rutter(1987)는 역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따라 관련되는 탄력성의 속성이 다르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루어진 모든 연구들이 탄력성의 변화를 가정하고 있지는 못하다. Masten et al(1999), Werner(1995)의 종적 연구 등에서는 처음에 탄력적이라고 명명된 아동들의 대부분이 시간의 경과에도 계속적으로 탄력적인 것으로 밝혀져 탄력성이 전 생애동안 변화 없이 지속될 수 있

는 개인의 특성임을 시사했다.

3) 발달적 맥락주의 관점(포괄적 개념)

최근의 연구들이 지향하는 발달적 맥락주의 관점에서는 탄력성을 보다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념으로 본다. 이 관점에서는 탄력성의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중 어느 것이 우선이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대신에 탄력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유전과 환경이 상호작용하거나 협력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Deater-Deckard et al., 2004).

이 관점에서의 탄력성 연구에 뼈대가 되고 있는 이론은 발달 시스템 이론(Thelen & Smith, 1998; Ford & Lerner, 1992; Lerner, 2006), 발달 정신병리학 이론(Masten, 2006), 그리고 Bronfenbrenner의 발달 생태분포 모델(Bronfenbrenner, 1979, 1986)이며, 탄력성은 넓고 통합적 시점에서 복합적 수준의 기능들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Masten & Obradovic, 2007). 즉, 탄력성은 개인적 내적 요인일 뿐 아니라 발달적 통합이 일어나는 순간마다 개인-환경 상호작용 맥락에서 시간에 걸쳐 변화하고,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생물학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들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변화•발달하며 이루어진다(Egeland et al., 1993; Dyer & McGuinness, 1996).

탄력성의 포괄적 관점을 취하는 학자들의 탄력성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Harvey & Delfabbro(2004)는 탄력성은 개인적인 특성인 동시에 사회적, 상황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므로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영향과의 상호작용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Leipold & Greve(2009)은 탄력성은 주어진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이며, 한 개인의 능력에 국한된 영웅적 특성의 개념이 아닌 환경적 영향과의 상호작용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Beasley-Sullivan (2010)은 탄력성을 인생

전반에 걸친 매우 역동적 과정이라고 언급하였다. 탄력성은 인간 능력의 잠재적 강점이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과 주요한 인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과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는 과정을 뜻한다.

포괄적 관점주의 차원에서 최근에는 기존의 연구접근방식이 지닌 단점을 보완하고 탄력성의 개념을 재통합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인간중심 접근방식과 변수중심접근방식을 병행한 모형을 실시하고 있다(Luthar,& Cushing, 1999;Masten, 2001). 이 병행모형은 심리적 측면과 생태학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Cicchetti & Valentino,2006;Prilleltensky, Nelson & Peirson, 2001), 보호요소들의 맥락적 요소들을 함께 파악할 수 있다(Ayoub et al., 2006;Cicchetti & Rogosch, 1997;Clauss-Ehlers, 2003;Wilkes, 2002).

또한 발달적 맥락주의 관점의 탄력성 연구에서 탄력성의 동태적(動態的) 특성과 다차원성(multi-dimensionality) 및 영역특수성(domainspecific)을 고려해야 할 것을 지적하였다.

이 관점에서 탄력성은 성격특질이면서도 맥락에 따라 증진되거나 쇠퇴할 수 있는 가변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번 성취하면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한다. 따라서 특정 시기에 탄력적인 사람도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하는 등의 다른 시기에서는 탄력성이 떨어져 취약할 수 있다(Garmezy, 1990;Luthar et al., 1993;Luthar et al., 2000b)고 주장한다. 때문에 탄력성의 동태적(動態的) 특성을 고려해야한다.

탄력성의 다차원성 및 영역특수성은 각 발달영역에 따라 탄력성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에 주목하여 고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Luthar 등(1993)은 한 영역에서는 탄력적이라고 판단된 아동들이 다른 영역에서는 부적응적인 거로가들을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Olsson et al,2003;이해리,조한익,2005;이해리,2007)은 탄력성의 다차원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유능성, 사회적 유능성, 학업적 유연성 등과 같은 세분화된 탄력성 정의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Ungar(2008)는 탄력성을 이해하거나 정의내릴 때 개인적인 장점들

뿐만 아니라 가족의 측면이나 사회 문화, 환경의 모든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옥경과 최명민(2001)은 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탄력성이 다른 상황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은 탄력성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탄력성을 중다차원의 구성개념으로 보고 영역 특징에 따라 교육적 탄력성(Wang,Haertel,& Wahlberg,1994), 정서적 탄력성(Kline& Short,1991) 그리고 행동적 탄력성(Carpentieri, Mulhem, Douglas, Hanna,& Fairdough,1993) 등으로 구분하면서 자기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의 전반적인 탄력성과는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3. 학교적응유연성(academic resilience)

학교적응유연성은 탄력성의 개념을 학교상황에 적용한 것이다. 학교는 사회환경 속에서 개인적·사회적으로 바르게 적응하고 자기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미라, 2001). 아동청소년기에 학교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가장 중요한 생활영역으로 학교에서의 적응유연성을 살펴보는 것이 전반적인 적응 정도를 알아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은 이후 성인기에 들어서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많은 제한이 있게 되므로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Mischel, Shoda & Peake, 1988).

학교에서 잘 적응한다는 것을 Havighurst(1972)는 발달과제라는 관점에서 학업성취 정도가 높고, 또래들과 잘 어울리며, 학교생활에서 긍정적 행동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유능성으로 보았다. Masten & Coatsworth(1998)은 학교 이외의 가족 등의 환경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려운 경우 학교가 더욱 중요하다

고 강조하였으며, 이 시기의 발달과제로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 사회적으로 적절한 규칙준수행동, 학업성취, 자기정체감 형성, 교과 외 활동참여 등을 들었다. Hernandez(1993)은 높은 성취동기나 성적 뿐 아니라 학교에서의 성공과 이후의 직업 성취와 긍정적으로 관련되는 복합적인 자질과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고위험의 상황에서도 스트레스적인 상황을 견디며 학업적인 성취가 높게 유지되고 학교에 대해 높은 동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인 상황이나 사회적 문맥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을 학교상황에서의 적응유연성이라고 정의하였다(양국선, 2001).

국내에 학교적응유연성을 처음으로 소개한 박현선(1998)은 학교적응유연성을 고위험의 역경상황에서도 학업성취도가 높고, 학교생활에 대하여 높은 동기와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 규범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김누리(2008)는 학교적응유연성의 하위요인을 학습조절, 친구지지, 학업 상황에서의 자기통제, 긍정적 태도, 과제책임감, 부모지지 라고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학교적응유연성이란 역경의 상황에서도 학교 안에서 긍정적으로 적응해 나가거나 성공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 즉, 학업성취가 높고, 학교 생활에 대해 높은 동기와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대인관계와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학교 내 규범을 성실하게 따르는 능력이다.

4.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

가족탄력성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 구성체로서, 강점관점과 가족스트레스 이론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개인탄력성 연구의 활성화에 힘입어 재구성된 개념이다(Hawley & Dehaan, 1996). 이 개념은 1990년대부터 등장하였으며 개인에 대한 연구가 가족에 적용된 것으로 가족을 하나의 전체적인 기능단위로 보고, 고위험 혹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잘 적응하는 가족의 자질, 적응적 능력은 무엇

인지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둔다. 가족탄력성은 가족 성원들이 삶의 도전에 긍정적으로 직면하여 가족 내의 힘을 강화하는 능력을 말하며(Brenda et al, 2000), 역경에 대응하는 가족의 대처와 적응을 기본으로 가족의 잠재적인 회복과 성장을 확신하고 가족이 혼란스러운 도전을 견뎌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적응이나 회복여부만이 아니라 적응과 회복의 개념을 포함하여 기능상 이전 상황보다 발전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Walsh, 1998).

가족학적 관점에서 탄력성을 연구한 McCubbin과 McCubbin(1998)은 가족이 변화 앞에서 붕괴되지 않도록 그리고 위기상황에서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가족의 특성, 차원속성이라고 하였다. 또한 김미옥(2001)은 가족탄력성이란 가족이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적응적이 되고 변화에 직면하여 위협에 적응하도록 돕는 가족의 특징, 차원, 속성이라고 정의하였다.

가족탄력성 연구에서도 중요한 두 축은 double-ABCX 모델을 발전시켜 탄력성 모델을 구성한 McCubbin의 연구와 가족탄력성에 대한 저서를 출판하면서 가족탄력성의 이론적 기원부터 개념, 적용의 실제 등을 밝힌 Walsh(1993)의 이론이다.

1) McCubbin의 가족스트레스, 조절, 적응의 탄력성 모델

McCubbin & McCubbin(1993)의 가족탄력성 모델은 인생의 변화와 혼란에 대한 가족의 반응을 조정단계와 적응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먼저 조정단계(Adjustment Phase)는 위기상황 시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가족의 반응이다. 이는 스트레스 생활사건의 심각성 수준과 가족의 취약성과 관련이 있다. 가족은 조정단계를 거치면서 매일의 일상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형성해온 상호작용 패턴, 역할, 규칙을 유지하기 위해 시도한다. 조정단계는 가족과

정과 결과를 모양지우는 일련의 상호작용하는 구성요소들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데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가족의 스트레스 요인과 그 심각성, 가족의 취약성, 가족의 기능유형, 가족자원,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의 평가, 그리고 가족의 문제해결과 대처방법이다(이은희, 2000).

적응단계(Adaptation Phase)는 위기 이후의 적응 지향적인 요소와 적응의 관계적 과정 속에 포함되는 가족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탄력성 과정을 나타낸다. 이 과정 속에서 순환적인 노력을 하게 되는데, 가족 변화노력이 비성공적으로 증명되고 잘못된 적응 결과를 얻게 되면 가족은 다시 조절을 통한 적응을 얻고자 시도한다(이선애, 2004). 가족의 적응수준은 가족의 기능 유형, 가족자원, 가족의 상황적 평가 그리고 가족의 문제해결과 대처능력의 상호작용적 영향에 의해 결정된다(이은희, 2000).

McCubbin은 가족 탄력성 모델의 하위요인으로 가족기능, 가족자원, 의사소통 방법, 가족내구력, 가족쉐마, 사회적 지지 등을 제시하였다(홍정남, 2007).

(1) 가족의 대처응집력

가족의 응집력은 개인이 가족 내의 다른 성원들과 분리 또는 연결되어 있는 정도 즉, 가족구성원이 서로를 향하여 집결되는 정서적 결속을 의미한다.(Olson, Portner & Lavee, 1985) 응집력은 가족의 잠재적 자원들을 실제적 자원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동기부여를 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변화추진이 가능하게 하도록 한다. Russell(2000)은 너무 높은 차원의 응집성 혹은 너무 낮은 차원의 응집성은 장기적으로 가족에 문제일 수 있다고 하였다(Anderson, 1994; Antonsky & Sourani, 1988; 조혜련, 2009). 이는 응집력 수준이 극히 높을 때에는 그 가족은 지나치게 상호동일시하여 각 개인의 개별화가 방해받기 쉽고 반대로 응집성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면 다른 가족원과의 접촉 및 개입이 제한되고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다(이상현, 1996).

(2) 내구력/강인함

가족의 내구력이란 가족의 내면적인 힘과 내구성을 의미하며, 생활상의 사건과 고난에 대한 통제감, 변화를 유익하고 발전적으로 보는 시각,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성이 특징이다. 가족내구력은 스트레스 인식에 완충 및 중재요인으로 작용하여 스트레스 상황에 올 수 있는 긴장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신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제가 된다(이은희, 2008).

(3) 가족의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가족적응을 촉진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가족 역기능을 설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변인으로 도출되기도 하였다(McCubbin et al, 1994; 이은희, 2008). 가족 문제해결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달성되며 특히 기능적 의사소통은 조절을 통해 문제해결, 대처전략을 가져온다(이경미, 2010).

(4)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다른 가족구성원, 확대가족, 친구와 같은 사회적 자원을 포함한 사회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자원은 생활 사건 혹은 역경이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에 대항하여 완충적 혹은 보호적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역경 그 자체의 수준을 줄인다고 하였다(강현옥, 2009).

(5) 가족대처전략

가족대처란 스트레스로 인해 가족체계의 조직이 파괴되더라도 대처하여 회복하고 재조직하여 오히려 변화 이전의 상태보다 통합되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McCubbin, 1987). 가족탄력성 모델에서는 대처행동을 가족구성원 개인이나 혹은 전체로서의 가족이 가족체계에 대한 요구를 감소시키거나 상황을 다루기 위하여 자원의 활용을 시도하는 특수한 노력으로 정의한다. 탄

력모델에서 대처행동의 역할은 가족의 스트레스원과 관련된 곤란을 다루거나 제거하는 능력 그리고 능력 활용을 통한 가족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된다 (McCubbin, 1978;McCubbin et al, 1989).

2) Walsh의 가족탄력성 모델

Walsh(1998)는 정신장애인의 가족을 포함하여 이혼, 청소년, 여성 등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가족탄력성 이론의 실제적인 적용과 실천 전략을 다양하고 깊이 있게 제시하였다. 가족탄력성의 구성요인으로는 신념체계, 조직유형, 그리고 의사소통 과정의 주요 3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갖는다고 하였다.

(1) 신념체계(Belief systems)

가족의 신념체계는 가족 내·외의 환경을 보는 하나의 렌즈 역할을 함으로써 가족의 경험을 해석하여 재조작하는 틀을 제공한다. 공유된 신념은 가족생활주기의 과정에 따라 개발, 재확인, 변화하고 가족이 하나의 기능적 단위로서 위험을 다루는데 영향을 준다(양옥경, 김미옥, 최명인, 2002). 가족의 신념체계는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긍정적 관점, 초월과 영성 등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첫째,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능력은 가족들이 위기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탄력적인 가족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위기를 하나의 도전으로 인식하여 도전에 따른 변화의 필요성을 더 잘 수용할 수 있다.

둘째, 긍정적인 관점은 역경에 대한 인내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족강점과 가능성을 확신하며 용기와 격려로서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초월과 영성은 더 큰 가치와 목적을 지향하며, 역경을 뛰어넘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하는 것으로 역경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한다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2) 조직유형(Organizational patterns)

조직유형은 가족이 하나의 단위체계로 통합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가족 구성원이 위기와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안정성과 변화의 균형에 대한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는가를 의미한다. 즉, 가족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가족원의 역할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가족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어떻게 외부 생태체계와 연계되어있는지를 말한다(김미옥, 2002). 이는 융통성, 연결성, 사회경제적 자원의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첫째, 융통성이란 가족이 조직에서 안정성과 변화 사이의 역동적인 조화를 통해 생활도전에 반응하며 변화를 허용하는 안정된 가족구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필요할 때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며 가족에 있어 높은 기능적 요인이기도 하다.

둘째, 연결성은 응집성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가족 간에 상호 지지해주고 협력하여 수행하는 능력이며 가족 구성원의 서로에 대한 정서적 연대감을 의미한다. 잘 기능하는 가족은 구성원 사이의 명확한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자신의사고, 감정, 행동에 책임을 가지고 개인의 강점과 관심을 잘 조직할 수 있다(Olson, 1993).

셋째, 가족의 사회·경제적 자원은 가족의 내·외적 환경 자원을 얼마나 잘 조직하고 있는가와 관련된다. 탄력적인 가족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여 적극적으로 외부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가족과 지역사회 내의 자원체계와 연결되어 있다.

(3) 의사소통과정(Communication process)

의사소통 과정은 가족의 기능이 원활하도록 촉진시키는 요인으로서 사회적 • 경제적 및 실제적 • 도구적 문제해결 모두에 대한 정보교환으로 정의된다(Epstein et al, 1992). 의사소통의 명료성, 개방적 정서표현, 협동적 문제해결의 세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첫째, 의사소통의 명료성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분명하고 일관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가족기능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잘 기능하는 가족의 의사소통은 언어적, 행동적 메시지가 일관성 있으며,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일치한다.

둘째, 개방적인 감정표현은 가족구성원들이 즐거움, 희망뿐만 아니라 고통이나 두려움 등의 광범위한 감정까지도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탄력성인 가족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동시에 서로의 의견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으며 상호간의 긍정적인 감정의 개방적 표현을 활발히 한다.

셋째, 상호협력적 문제해결은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가족이 자유롭게 창조적인 논의와 공유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함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도 학자마다 가족탄력성의 요소를 각기 제시하였는데, 용어의 선택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다양하나,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Singer & Power(1993)은 가족탄력성의 기본적 요소로 유연한 의미해석, 균형 잡힌 대처, 유연한 상호의존을 제시하였다. Silliman(1994)은 위임, 의사소통, 응집력, 적응성, 연결성, 시간 공유, 효율성이라고 제시하였으며, Hawley(2000)는 가족기능에 관한 조사에서 가족탄력성의 기본 요소로 응집력, 유연성, 공개적 의사소통, 문제해결과 신념체계를 제시하였다.

Ⅲ. 연구방법

1. 분석대상

1) 연구논문 수집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표된 탄력성에 대한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riss.kr>), 국회전자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국내에 탄력성을 주제로 한 연구는 1996년 박은희의 논문을 시작으로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검색기간은 1996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검색 키워드는 '탄력성', 'resilience' '레질리언스', '적응유연성', '회복력', '극복력' 이었다. 자료는 2013년 10월 중순까지 추가하였다.

키워드로 검색된 자료 중 중복되는 자료는 검열하였으며, 탄력성의 조작적 정의를 검토하여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탄력성(피부탄력성 등),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탄력성(수요탄력성, 가격탄력성 등)등 부합하지 않는 연구는 선별하여 제외하였다. 그 결과 832편의 석·박사 학위논문과 187편의 학술지 논문으로 총 1,019편의 분석대상논문이 선정되었다.

2. 분석기준

선정된 논문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활용한 분석기준을 <표2>, <표3>와 같이 작성하였다.

<표 2> 논문분석틀

분석영역		분석내용
발행동향		연도별 학술지, 학위별(석•박사학위논문)
탄력성 하위차원		①자아탄력성 ②탄력성 ③가족탄력성 ④학교적응유연성 ⑤기타
학문영역	연구자전공	학술연구분야 분류표 참고하여 분류
연구대상	연령별 범주	①아동 ②청소년 ③대학(원)생 ④성인 ⑤노인 ⑥가족/부부 ⑦내담자 ⑧상담자 ⑨기타
	역경경험	①임상적 장애 ②임상수준 미만 심리적 문제 ③신체장애 ④신체질병 ⑤사회환경적문제 ⑥기타
연구방법	연구방법	①조사연구 ②척도개발 및 타당화 ③사례연구 ④연구동 향 및 분석 ⑤이론 및 고찰연구 ⑥탄력성 증진을 위한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832편의 석•박사 학위논문과 187편의 학술지 논문, 총 1,019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발행동향, 탄력성 하위차원, 학문영역, 연구대상, 연구방법별로 분석기준을 작성하였다.

연도별로 학술지와 학위논문의 발행편수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탄력성의 각 하위차원별 연구편수를 살펴보았다. 하위차원은 국내에서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는 자아탄력성, 탄력성, 가족탄력성, 학교적응유연성으로 구분하였다.

학문영역은 연구자의 대학과 전공을 참고하여 분류하였으며, 분류기준은 한국연구재단(www.nrf.re.kr)의 학술연구분야 분류표(2013.2)에 따랐다. 학술연구분야 분류표는 대분류(8)-중분류(152)-소분류(1,551)-세분류(2,468)의 4개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자의 대학은 대분류와 대조하였으며, 과는 중분류와 대조, 전공은 소분류와 대조하여 분류하였다.

연구대상의 연령별 범주는 이동혁, 유성경(2000)의 연구와 이정숙(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Buboltz 등(1999)의 연구대상범주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아동은 학령전 아동과 초등학생을 말하며, 청소년은 중고등학교에 다니거나 다니지 않는 14세에서 19세 이하인 청소년을 말한다. 성인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하며 노인

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으로 정의되나, 본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한 연구논문을 고려하여 60세 이상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연구대상에 대하여 역경을 경험한 대상을 선별하여 진행된 연구인지의 여부에 따라 역경경험과 비역경경험으로 구분한다. 여기에서 비역경경험은 역경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역경경험에 따라서 선별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역경경험은 심리적(임상수준/임상수준 미만), 신체적(장애/질병), 사회 환경적 문제로 구분하였다.

연구방법은 정수린(2013)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구성하였다.

탄력성 증진을 위한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논문의 분석틀은 <표 3>와 같 으며 노영남(2009), 이종승(2009), 김예주(2012)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표 3> 탄력성 증진을 위한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논문 분석틀

분석영역		분석내용
발표연도		발표연도별 탄력성 하위차원
연구대상특성	연령별 범주	①아동 ②청소년 ③대학(원)생 ④성인 ⑤노인 ⑥가족/부부 ⑦내담자 ⑧상담자 ⑨기타
	역경경험	①임상적 장애 ②임상수준 미만 심리적문제 ③신체장애 ④신체질병 ⑤사회환경적문제 ⑥기타
개입의 운영특성	주회기	①1 ②2 ③3 ④4 ⑤5 ⑥6 ⑦매일 ⑧기타
	회기당시간(m)	①-60 ②61-90 ③91-120 ④120 이상
	총회기수	①8회기 미만 ②8-12 ③13-20 ④20 이상
	총실시시간(h)	①8시간 미만 ②8-16 ③16-24 ④24이상
	개입인원(명)	①1-10 ②11-20 ③21-30 ④31-40 ⑤40-50 ⑥51이상
	개입유형	①집단프로그램 ②훈련 및 교육
	연구방법	연구 설계
통계 분석		①백분율 ②교차분석 ③t검증 ④F검증 ⑤공변량분석 등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수집된 자료를 Microsoft Office Excel 2010을 활용하여 입력하였으며 각 변인별로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탄력성과 관련된 총 1,019편의 학위논문 및 학술지논문의 발표연도 및 연구대상, 연구대상의 역경유무, 역경의 성격, 연구방법과 목적, 그리고 탄력성 증진을 위한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의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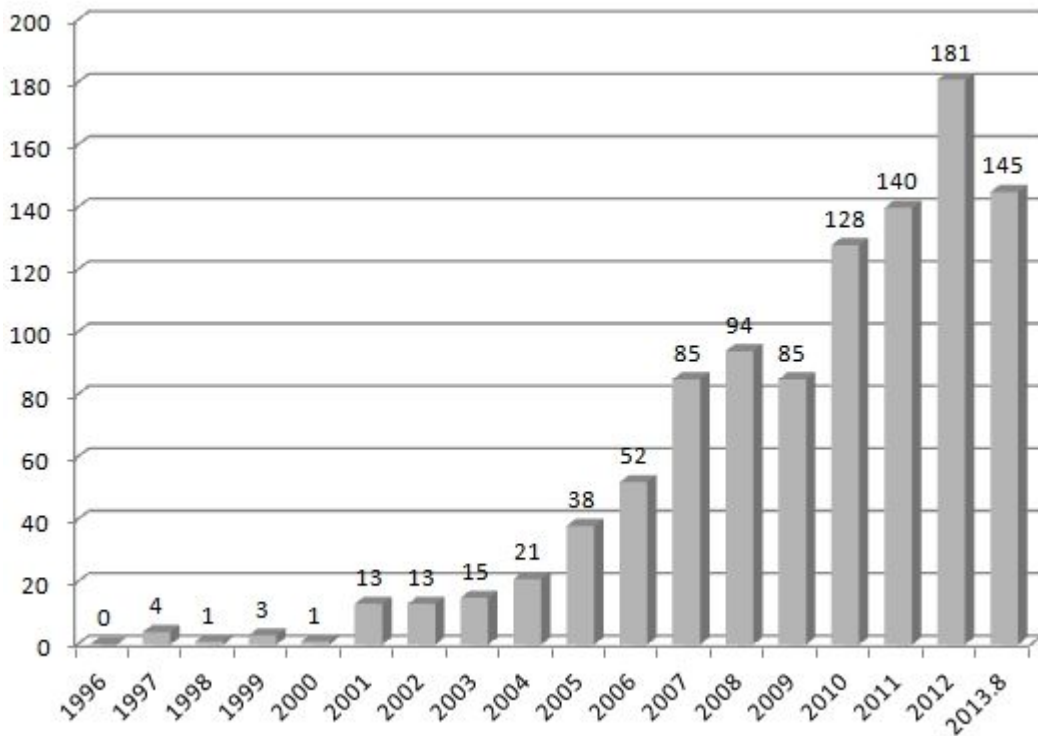
1. 발표연도에 따른 연구동향

1996년부터 2013년 8월까지의 석·박사, 학술지 논문은 <표 4>에서와 같이 석사논문 711편, 박사논문 121편, 학술지 논문 187편으로 모두 1,019편의 탄력성과 관련된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본연구가 참고한 데이터베이스에서 1996년 논문은 접근불가 하였으나, 1997년 발표된 논문이 4편(0.4%)에서 2013년 8월까지 발표된 연구논문이 145편(14.2%)으로 꾸준히 편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에는 85(8.3%)편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2010년에 128편(12.6%)으로 눈에 띄게 증가하여 2013년의 경우 중반기까지 조사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사와 박사논문에서 2012년과 동등한 수준의 발표편수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연구편수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탄력성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표 4> 발표연도별 연구 편수

연도	석사	박사	학술지	빈도	계
1996	0	0	0	0	0.0%
1997	3	0	1	4	0.4%
1998	1	0	0	1	0.1%
1999	0	0	3	3	0.3%
2000	1	0	0	1	0.1%
2001	4	1	9	13	1.3%
2002	8	1	4	13	1.3%

2003	8	2	5	15	1.5%
2004	13	3	6	21	2.1%
2005	26	3	9	38	3.7%
2006	32	10	10	52	5.1%
2007	66	11	8	85	8.3%
2008	70	7	17	94	9.2%
2009	61	10	14	85	8.3%
2010	78	13	37	128	12.6%
2011	90	15	35	140	13.7%
2012	127	23	31	181	17.8%
2013.8	123	22	0	145	14.2%
합계	711 (69.4%)	121 (11.8%)	187 (18.2%)	1,019	100



<그림 1> 발표연도별 연구 현황

2. Resilience의 하위차원 및 사용된 척도 경향

이론적 배경에서 다루었듯이 탄력성은 그 정의와 차원 등에 따라 여러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위차원별 연구동향과 사용된 척도에 대해 살펴 보았다.

국내에서 진행된 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탄력성, 개인의 심리사회적 능력인 자아탄력성, 가족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가족탄력성, 학교 안에서 긍정적으로 적응해 나가거나 성공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능력인 학교적응유연성이 주된 비중을 차지한다.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를 기준으로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연구논문의 탄력성 하위차원

자아탄력성	513
탄력성	289
가족탄력성	115
학교적응유연성	82
기타	7
2개 이상 사용	13
합계	1,019

* 연구의 사용명칭 기준

그러나 이는 연구 논문에서 사용한 용어의 명칭에 따른 구분으로서 명칭은 ‘탄력성’ ‘회복력’ ‘극복력’ 등 Resilience를 사용했으나, 사용한 척도를 보면 개인의 심리사회적 능력을 측정하는 연구논문이 182편(17.8%)이다. 또한 개인의 심리사회적 능력과 더불어 외적요인(가정/또래/사회요인)도 측정하였으나 자아탄력성의 명칭을 사용한 연구가 28편(0.02%)이었다. 사용명칭기준이 아닌 측정

한 척도기준으로 본다면 1996년도부터 2013년 중반기까지 발표된 논문 중 자아 탄력성 연구논문이 667편, 탄력성 연구논문이 135편이다.

한 연구논문에서 여러 탄력성 척도를 사용한 경우가 있었는데, 2개의 척도를 사용한 연구가 10편이며, 3개의 척도를 사용한 연구는 3편으로 확인되었다. 기타는 커플탄력성, 사회적 탄력성, 폭력 레질리언스, 교직적응탄력성, 정서대처 탄력성이다. 탄력성의 하위차원 별로 연구논문의 발표연도 동향을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연도별 탄력성 하위차원 연구

연도	자아 탄력성	탄력성	가족 탄력성	학교적응 유연성	기타	2개 이상	빈도	계
1996	0	0	0	0	0	0	0	0.0%
1997	3	1	0	0	0	0	4	0.4%
1998	0	0	0	1	0	0	1	0.1%
1999	0	2	1	0	0	0	3	0.3%
2000	1	0	0	0	0	0	1	0.1%
2001	5	4	2	2	0	0	13	1.3%
2002	3	4	2	2	0	2	13	1.3%
2003	5	6	1	3	0	0	15	1.5%
2004	7	6	4	3	0	1	21	2.1%
2005	21	8	4	3	0	2	38	3.7%
2006	20	22	4	6	0	0	52	5.1%
2007	44	16	13	11	0	1	85	8.3%
2008	50	18	10	13	1	2	94	9.2%
2009	38	26	15	6	0	0	85	8.3%
2010	77	29	13	6	0	3	128	12.6%
2011	74	36	21	7	2	0	140	13.7%
2012	94	60	12	13	1	1	181	17.8%
2013.8	71	51	13	6	3	1	145	14.2%
	513(50.3)	289(28.4)	115(11.5)	82(8.0)	7(0.7)	13(1.3)	1,01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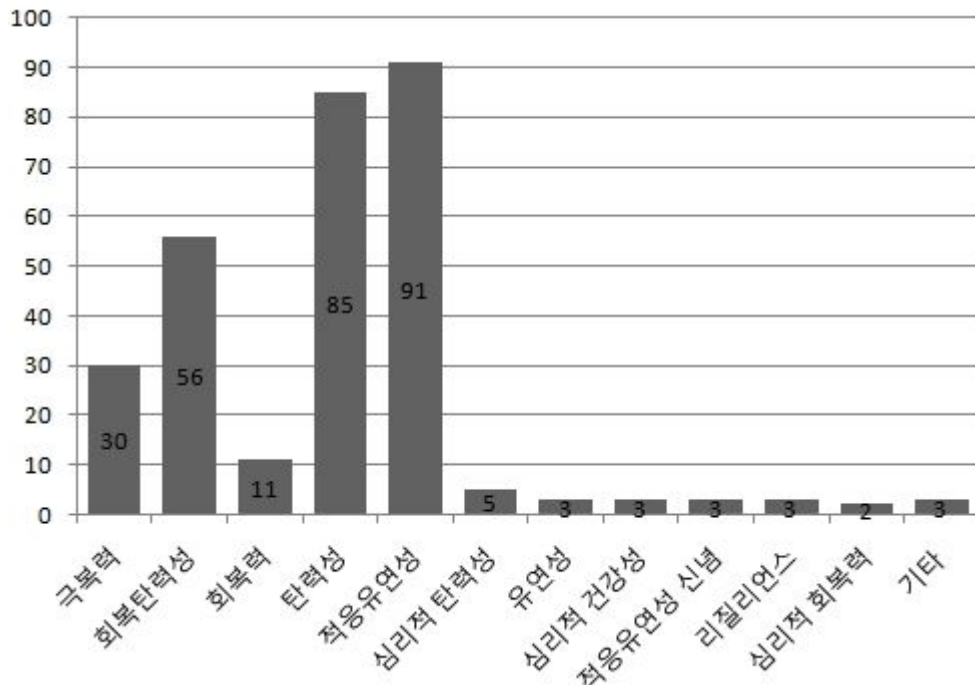
또한 탄력성의 하위차원별로 사용된 용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7>와

같이 ego-resilience, family resilience, academic resilience 의 경우 자아탄력성이 99.4%, 가족탄력성 78.9%, 학교적응유연성 85.2%로 용어사용의 비중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하여 resilience 용어사용의 경우에는 <그림 2>과 같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7> ego-resilience, family resilience, academic resilience 용어사용

ego-resilience		family resilience		academic resilience	
자아탄력성	515(99.4)	가족탄력성	97(78.9)	학교적응유연성	75(85.2)
자아회복력	1(0.2)	가족레질리언스	13(10.6)	학업탄력성	6(6.8)
자기탄력성	1(0.2)	가족회복력	6(4.9)	학업적탄력성	2(2.3)
자아레질리언스	1(0.2)	가족적응유연성	3(2.4)	학교탄력성	3(3.4)
		가족극복력	2(1.6)	기타	2(2.3)
		기타	2(1.6)		

<그림 2> resilience 용어사용



연구논문에 사용된 척도 중 빈번하게 활용되었던 척도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척도의 개발자를 중심으로 제시하였고, 척도를 번역, 수정, 보완한 연구자는 사용된 비중이 높은 경우에만 기술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략하였다. 또한 척도를 사용한 연구편수와 척도에 대하여 기재된 내적 일관성 신뢰도 지수(Cronbach's Alpha값)의 평균을 제시하였다. 신뢰도를 구하지 않았거나 전체 신뢰도가 없는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평균값을 내는데 활용한 신뢰도가 기재되어있었던 연구편수를 따로 기술하였다. 가족탄력성의 경우 각 구성개념별로 다른 척도를 사용한 경우가 많았으며, 전체적인 척도의 구성에 통일성이 낮았다. 따라서 전체 연구편수를 제시하기 어려워 생략하였다. 탄력성 척도의 신뢰도는 모두 0.7 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탄력성 하위차원별 척도

자아탄력성 및 탄력성 척도			
개발자 (연도)	도구	구성개념	척도사용연구편수, 평균 Cronbach's α (n=기재 편수)
	자아탄력성척도		
Block& Kreman (1996)	(Ego-Resiliency Scale : ER) 박은희(1996):O'Connell-Higgins(1983)와 Block&Kremen(1996) 참고하여 개발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	147, 0.82(n=132)
Klohenn (1996)	Block(1991)의 California Adult Q-Set 문항중 29문항 선정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분노조절	84, 0.89(n=70)
	회복탄력성 지수검사 (Resilience Quotient Test:RQT)	정서조절력, 충동통제력, 낙관성, 원인분석력, 공감능력, 자기효능감, 적극적 도전성	17, 0.89(n=12)
Reivich & Shatte (2003)	김주환(2011)이 번역,한국인에 맞게 수정 KRQ-53 Test	통제성(감정조절, 충동통제, 원인분석) 사회성(관계성, 공감, 커뮤니케이션) 긍정성(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하기)	21, 0.89(n=13)

Atsushi 등 (2003)	Resilience Scale	흥미와관심의다양성, 감정조절, 긍정적미래지향성	16, 0.86(n=15)	
Wagnild & Young (1987,1993)	Resilience Scale	개인의유능성, 자신과 삶의수용	27, 0.91(n=24)	
	김동희(2002) 수정보완	개인내적특성, 대처양상특성, 대인관계특성	11, 0.91(n=8)	
LeBuffe & Naglieri (1999)	만 2세- 5세 유아용 resilience 측정도구 (DECA) 중 전체 보호요인 척도에 해당하는 것	애착, 주도성, 자기통제	18, 0.91(n=12)	
주소영, 이양희	초등학교고학년 아동용 탄력성 척도 (RSC)	자기효능감, 부정적감정인내, 통제력, 자발성	11, 0.93(n=10)	
	청소년용 탄력성 척도 (Resilience Scale for Adolescents:RSA)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뢰, 문제해결능력, 부정적감정의 인내, 학업적유능감	4, 0.91(n=4)	
Connor & Davison (2003)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	강인함, 인내력, 낙관성, 지지, 영성	9, 0.93(n=4)	
Block & Block(1980)	Clifornia Child Q-set 자아탄력성 척도/자아통제척도 구성	자아탄력성척도	17, 0.80(n=14)	
Jew(1991)	적응유연성 신념체계 Resilience BeliefSystem	기술습득에 대한 적극성, 미래지향성, 독립성/위험감수	3, 0.90(n=3)	
황순택 등 (2006)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 부모보고형(KPRC)	자아탄력성 척도	4, 0.84(n=84)	
김승태 등 (1997)	한국아동인성검사(KPI-C)	가족관계, 자신감 및 쾌활함, 낙천성 및 자기수용, 또래관계	16, 0.84(n=12)	
Smith 등 (2008)	간이탄력성척도(The Brief Resilience Scale, BRS) 6문항		5, 0.87(n=4)	
Friborg 외 (2003)		강인성, 종교성향, 친밀함, 사회적지지, 꿈과 목표, 실존적 영성, 인내심	3, 0.91(n=3)	
이해리와 조한익 (2006)	한국청소년탄력성척도	개인내적특성(지적차 원, 정서적차원, 의지적차원, 영성적차원	0.85 (n=17)	50, 0.90 (n=47)
		외적보호요인(학교차 원, 가정차원, 지역사회차원,	0.84 (n=17)	

또래 차원)			
Ryab & Caltabiano (2009)	RIM척도(The Resilience in Midlife Scale)	자기효능감, 가족및사회관계망, 대처와적응, 인내심, 내적통제위	1, 0.82(n=1)
박순희와 이주희 (2009)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척도	개인내적차원, 가족관련 차원, 사회환경적 차원	2, 0.94(n=2)
WestEd 개발	Healthy Kids Resilience Assessment 이 중 유연성	사회적 유능감, 자신에 대한 인식, 목표의식	5, 0.84(n=5)
가족탄력성			
Walsh(1998)의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			
하위변수	도구		평균 Cronbach's α (n=기재 편수)
신념체계	가족통제감	Antonovsky & Sourani(1988)	0.84(n=38)
	가족강점	Olson(1993) 가족강점척도	0.84(n=40)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Constructed Meaning Scale : CMS(1995)	0.72(n=2)
조직패턴	역할안정성	Epstein과 동료들(1983) 가족기능평가(FAD)의 하위영역 중 추출	0.74(n=40)
	응집력	Olson, Portner, Laves(1985) FCES-III 중 응집성 항목	0.83(n=40)
	가족자원	McCubbin, Comeau & Harkins(1981) FIRM(The Family Inventory of Resources for Management Epstein 등(1983)	0.82(n=38)
의사소통과정	가족기능평가척도	가족기능 평가(FAD :The Family Assessment Device) 중 추출	0.83(n=32)
McCubbin의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			
가족도식 (가족스키마)	가족내구력	McCubbin, McCubbin & Thompson(1986, 1988, 1991) Family Hardiness Index : FHI : 수행/도전/통제	0.80(n=23)
		McCubbin 등(1992) FSCH-E	0.85(n=3)
의사소통		(McCubbin, McCubbin & Thompson(1988) 문제해결 의사소통(FPSC) 중 호의적 의사소통	0.82(n=19)
사회적 지지		McCubbin, Patterson, Glynn(1982) 사회적지지 척도(SSt;Social Support Index_	0.79(n=8)
		박지원(1985) 사회적지지 문항	0.92(n=3)
문제해결 및		McCubbin, Olson & Larsen(1981)	0.81(n=12)

대처전략	F-COPES : 인지적지향, 영적지지추구, 가족기동성)			
응집성	Olson,Portner와 Lavee(1985)가개발,가족응집성척도(FamilyCohesionEvaluationScaleIII:FCES-III)		0.85(n=8)	
가족기능	Smilkstein(1978) 개발한 가족 APGAR : 적응, 협력, 성장, 애정, 용화		0.82(n=3)	
	McCubbin, Thompson & Elver(1995a)이 가족응집성과 적응성 척도(FACE II)를 재구성한 FACE IIA를 다시 재구성한 것인 FACI8		0.91(n=2)	
기타(통합)				
개발자(연도)	도구	구성개념	척도사용연구편수, 평균 Cronbach's α (n=기재 편수)	
Sixbey(2005)	Walsh(1998)의 이론을 바탕으로 Family Resilience Assessment Scale(FRAS) 개발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과정	6, 0.93(n=5)	
윤경자 외(2011)	Walsh(1998)의 이론에 따라 제작	신념 체계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2, 0.77(n=2)
			긍정적 시각	2, 0.71(n=2)
			초월과 영성	2, 0.68(n=2)
		조직 유형	융통성	2, 0.89(n=2)
			연결성	2, 0.87(n=2)
			사회경제적 자원	2, 0.79(n=2)
		의사 소통 과정	명확화	2, 0.74(n=2)
개방적 정서표현	2, 0.88(n=2)			
	상호협력적 문제해결	2, 0.87(n=2)		
McCubbin & McCubbin (1996)	FARCA(Family Assessment Resiliency, Coping Adaptation)	가족강인성, 가족관리자원, 가족문제해결 및 대응전략	1, 0.92(n=1)	
학교적응유연성				
개발자(연도)	도구	구성개념	척도사용연구편수, 평균 Cronbach's α (n=기재 편수)	
Hernandez (1993)	박현선(1999) 수정 보완함	학교에 대한 흥미	0.77(n=30) 61, 0.83	
		성적이나 학업관련	0.66(n=30) (n=52)	

		학교규범준수	0.72(n=30)
김택호(2004)		학업적응, 사회적응, 학교환경 및 일반적응	6, 0.93(n=3)
김누리(2009)	성인대학생용 학업탄력성 도구	종교지지, 자기통제, 학습조절, 친구지지, 계획주도	2, 0.89(n=2)

척도사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질적연구 혹은 Q방법론을 사용한 연구로서 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지 않은 연구가 18편(0.02%)이었으며, 탄력성 척도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적응수준과 위험수준 혹은 문제수준을 측정함으로써 탄력적인 집단을 구분한 연구는 14편(0.01%)이었다. 한편 연구자가 정의한 탄력성 구성개념 척도 혹은 보호요인관련 척도를 사용하거나 적응의 결과(성적 등)로 대체한 연구가 12편(0.01%)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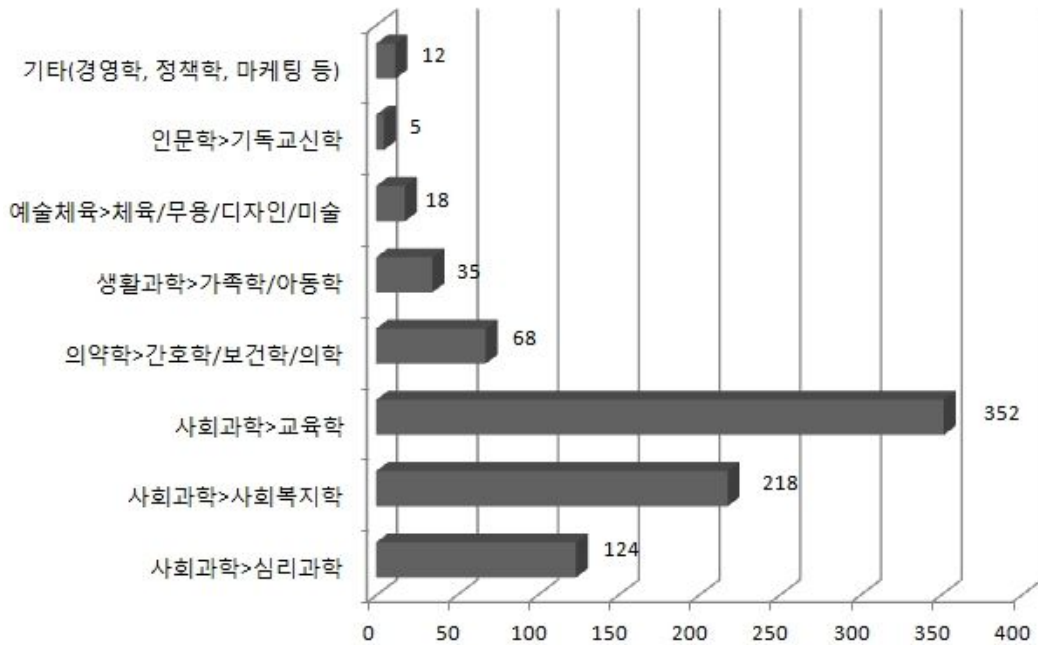
3. 연구자 전공별 분류

탄력성에 대한 연구논문들의 학문영역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연구재단(www.nrf.re.kr)의 학술연구분야분류표(2013.2)를 기준으로 연구자의 대학전공에 따라 분류하였다. 대분류(8)-중분류(152)-소분류(1,551)-세분류(2,468) 등 4개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면관계상 탄력성연구의 학문영역에 포함된 해당분야만 <표 9>에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대학은 대분류와 대조하였으며, 과는 중분류와 대조, 전공은 소분류와 대조하였다. 연구자들의 전공을 통해서 탄력성이 어떤 학술분야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또한 해당분야에서의 요구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표 9> 연구자 전공별 학문분야 분류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회과학	심리과학	심리학이론/심리학사, 발달심리, 건강심리, 인지심리, 임상심리, 상담심리/심리치료, 응용심리(디자인심리, 예술심리, 스포츠심리)

	교육학	교육학일반, 교육심리학, 교육과정, 분야교육(유아교육,초등교육, 특수교육, 영재교육)
	사회복지	사회복지학일반(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 사회복지행정),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가족복지
의약학	간호학	간호학일반, 아동간호, 청소년간호, 성인간호, 정신간호, 간호관리, 호스피스간호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보건학(보건관리, 보건정책, 보건교육)
	의학일반	의학정보, 의학사, 기타의학일반
자연과학	생활과학	가족학(가족상담 및 교육, 가족복지 및 정책) 아동학(아동발달, 아동보육, 청소년학)
	체육	체육일반,스포츠사회학,사회/생활체육
예술체육	무용	무용철학, 무용기능학, 무용사회학
	디자인	디자인일반, 환경디자인, 산업디자인
	미술	미술일반, 순수미술, 응용미술
인문학	기독교신학	기독교교육, 실천신학, 목회상담학, 기타기독교신학



<그림 3> 석·박사 학위논문의 연구자 전공에 따른 학문영역

학위논문 연구자의 전공에 따른 학문영역을 정리한 <그림 3>에 의하면 탄

력성에 대한 연구가 되고 있는 학문분야는 심리과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간호학, 보건학, 의학, 가족학, 아동학 및 예술체육분야, 기독교신학 분야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교육학으로 352편이며 전체 학위논문의 42.2%로 나타났다. 이중 상담심리가 113명, 교육심리가 50명, 교육상담이 35명, 학교상담/상담생활지도가 27명이며, 분야교육 66명, 교육학과가 43명, 체육교육 18명이다.

사회복지학 영역은 218편(26.1%)으로 사회복지학이 151명, 아동/청소년/가족복지가 52명, 사회사업이 9명, 사회복지 및 정책이 6명으로 조사되었다.

심리과학 영역에서 124편(14.9%)의 학위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상담심리/심리치료가 53명, 심리학과가 43명, 응용심리가 18명, 임상심리가 7명, 재활심리가 3명으로 나타났다.

의약학 영역은 68편으로 전체 학위논문 중 8.1%의 비중을 차지하며 간호학이 59명, 보건학이 8명, 의학은 1명으로 확인되었다.

자연과학의 생활과학영역은 36편(4.3%)으로 가족학 11명, 아동/청소년학이 25명이다.

예술체육영역은 18편(2.2%)인데 이중 대부분이 체육학 전공자로 13명이며 무용이 3명, 디자인 1명, 미술 1명이다.

기독교신학이 종교영역에서 유일하였으며 5편(0.6%)으로 신학전공, 기독교상담전공자로 구성되었다.

기타는 12편(1.4%)인데 그 수가 적어 따로 분류하지 않았다. 경영학, 소비자학, 경호학, 정책학, 향만물류학, 행정학, 마케팅전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분류결과 가장 많은 전공분야는 사회복지학(151편)으로 나타나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탄력성에 대한 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공분야는 교육학영역의 상담심리(113명), 간호학(59명), 심리과학 상담심리/심리치료(53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학문분야별 연구

	자아 탄력성	탄력성	가족 탄력성	학업 탄력성	기타	합계
사회과학>심리과학	91	24	5	2	2	124
사회과학>사회복지학	67	54	60	41	0	222(4)
사회과학>교육학	241	76	14	20	3	354(2)
의약학>간호학/보건학/의학	9	46	10	5	0	70(2)
생활과학>가족학/아동학	19	9	6	2	0	36(1)
예술체육 >체육/무용/디자인/미술	11	6	0	1	0	18
인문학>기독교신학	1	3	0	1	0	5
기타(경영학,정책학,마케팅등)	3	7	2	0	0	12

<표 10>를 보면 학문분야별로 연구된 탄력성개념을 연구 논문에서 사용한 용어의 명칭과 척도에 따라서 분류하였다. 심리과학 영역은 자아탄력성(73.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탄력성(19.2%)으로 개인의 심리사회적 능력으로서의 탄력성이나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탄력성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학 영역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되어 자아탄력성이 67.9%, 탄력성 21.7%로 연구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했다.

사회복지학 영역에서는 자아탄력성(30.0%), 가족탄력성(26.9%), 탄력성(24.2%), 학교적응유연성(18.8%)로 각 개념별로 비교적 균일하게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학 영역은 탄력성(65.7%)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회복력’ 혹은 ‘극복력’ 용어사용빈도가 높았다.

위 <표 10>의 합계가 전체 학위논문 수를 초과하는 까닭은 한 연구논문에서 여러 탄력성 척도를 사용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학 영역에서 3개 척도를 사용한 논문이 1편, 2개의 척도를 사용한 연구가 2편이었으며, 교육학 영역에서 척도2개 사용 연구가 2편, 간호학/보건학/의학에서 척도 2개 사용연구가 2편, 가족학/아동학에서 척도 2개의 사용연구가 1편이었다.

4. 연구대상에 따른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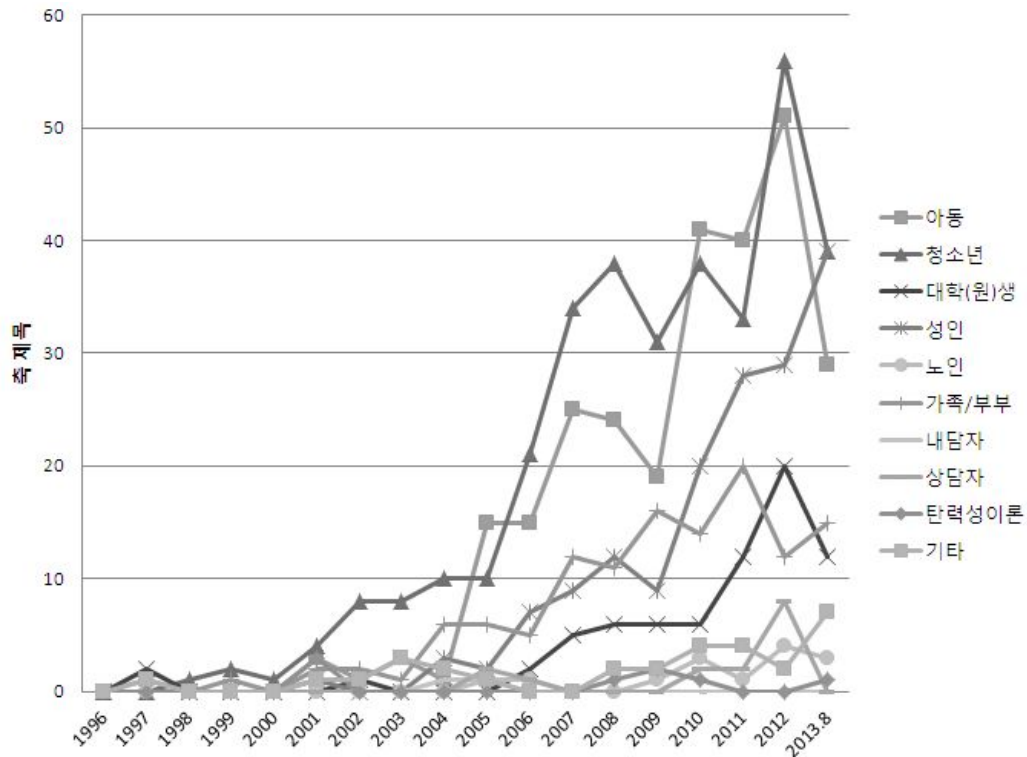
1) 발표연도에 따른 연구대상의 동향

연구대상에 따른 탄력성 연구동향은 아동, 청소년, 대학(원)생, 성인, 노인, 가족·부부, 내담자, 상담자, 불특정대상의 이론연구, 기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발표연도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11><그림 4>와 같다.

전체적으로 탄력성 연구대상별 동향을 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334편(32.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아동 268편(26.1%), 성인 159편(15.5%), 가족/부부 123편(12.0%), 대학(원)생 72편(7.0%) 그리고 상담자 15편(1.5%), 노인 14편(1.4%), 불특정대상의 이론연구 8편(0.8%), 내담자 2편(0.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구분된 연구대상이 둘 이상으로 혼합된 경우로 분류했는데, 아동·청소년이 18편(1.8%), 성인·노인이 7편(0.7%), 전연령이 3편(0.3%), 청소년·대학(원)생이 2편(0.2%)으로 2.9%로 확인된다.

<표 11> 발표연도 및 연구대상에 따른 연구동향

연도	아동	청소년	대학 (원)생	성인	노인	가족/ 부부	내담 자	상담 자	탄력 성이론	기타	계(%)
1996	0	0	0	0	0	0	0	0	0	0	0(0.0)
1997	1	0	2	0	0	0	0	0	0	1	4(0.4)
1998	0	1	0	0	0	0	0	0	0	0	1(0.1)
1999	0	2	0	0	0	1	0	0	0	0	3(0.3)
2000	0	1	0	0	0	0	0	0	0	0	1(0.1)
2001	3	4	0	1	0	2	0	0	2	1	13(1.3)
2002	1	8	1	0	0	2	0	0	0	1	13(1.3)
2003	3	8	0	0	0	1	0	0	0	3	15(1.5)
2004	1	9	0	3	0	5	1	0	0	2	21(2.1)
2005	15	10	0	2	1	6	1	2	0	1	38(3.7)
2006	15	21	2	7	1	5	0	1	0	0	52(5.1)
2007	25	34	5	9	0	12	0	0	0	0	85(8.3)
2008	24	38	6	12	0	11	0	0	1	2	94(9.2)
2009	19	31	6	9	1	15	0	0	2	2	85(8.3)
2010	41	37	6	20	3	14	0	2	1	4	128 (12.6)
2011	40	33	12	28	1	20	0	2	0	4	140 (13.7)
2012	51	56	19	29	4	12	0	8	0	2	181 (17.8)
2013. 8	29	39	12	39	3	15	0	0	1	7	145 (14.2)
계(%)	268 (26.3)	332 (32.6)	71 (7.0)	159 (15.6)	14 (1.4)	121 (11.9)	2(0.2)	15 (1.5)	7(0.7)	30 (2.9)	1,01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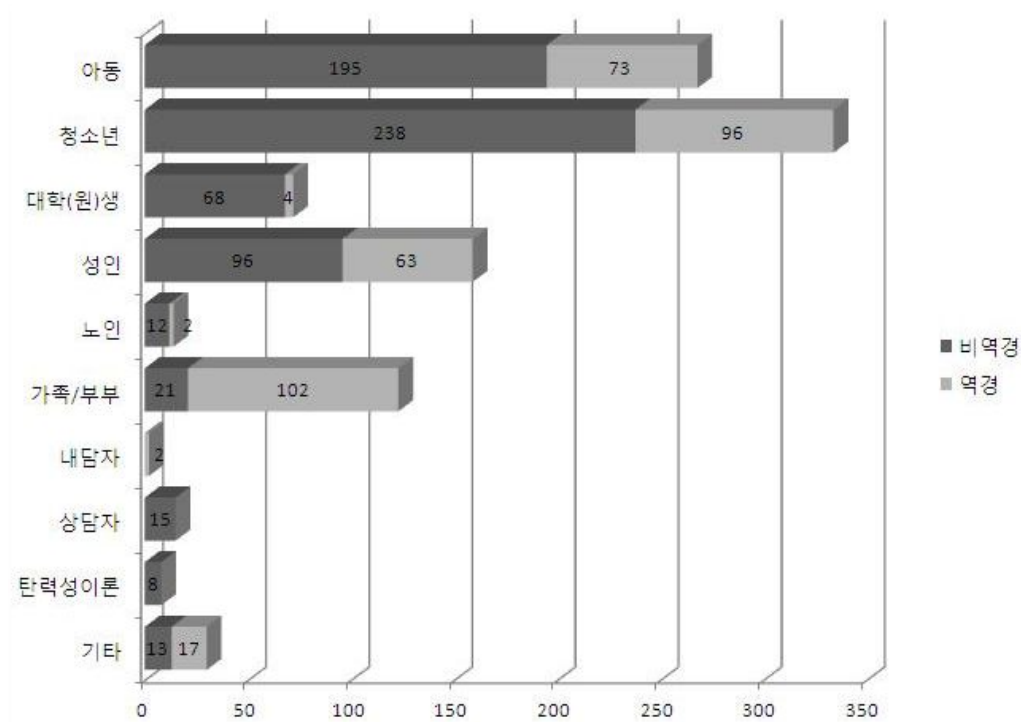
<그림 4> 발표연도 및 연구대상에 따른 연구동향

아동과 청소년이 연구 대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에 2011년 사이에 증감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인 것을 알 수 있다. 특정대상이 없는 이론연구와 내담자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연구대상자는 노인으로 노인을 연구대상으로 한 탄력성 연구논문은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연구대상 및 역경경험

연구대상의 역경경험 유무에 따라 비역경 연구대상과 역경 경험 연구대상으로 구분하였다. 역경을 경험한 특정대상을 연구했을 경우 역경경험으로 구분하였으며, 비역경은 역경을 경험하지 않았다기보다 대상을 역경경험에 따라

서 구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연구대상 및 역경경험 유무에 따른 분석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연구의 대상별 역경경험

가족/부부의 경우 역경경험 연구대상이 82.9%로 역경을 경험한 대상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성인(39.6%), 청소년(28.7%), 아동(27.2%) 순이었다. 대학(원)생, 노인의 경우 역경을 경험한 대상을 연구한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대상의 역경경험의 성격에 따른 분류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12> 연구대상의 역경경험 분류

역경내용		아동	청소년	대학 (원)생	성인	노인	가족/ 부부	내담자	기타	계
임상적 장애	발달장애 /지체장애	1	2		2					5
	알코올중독 /의존				4		1			5
	정동장애 /정신분열증				7					7
임상수준 이하 심리적 문제		4	17				1			22
신체장애			2		3					5
신체 질병	암	2			10				4	16
	만성질환	2							1	3
	혈액투석				3					3
	기타질환 (관상동맥 파킨슨 등)	0			1	1			4	6
경제 환경 문제	빈곤/저소득	14	20				2		3	39
	결손가정	12	12		1		9			34
	실직가정	0	2				1			3
	기타(복합)	3	1							4
사회 환경 문제	다문화가정	8	1		5		9			23
	임상장애 가족원 가정	4	1		5		51			61
	신체질병가족 원 가정				1		22			23
	이혼가정	4	1	1	2		1			9
	문제음주 가정		3	1	3		3		1	11
	새터민		3		5		1			9
	시설보호 /거주	8	18						2	28
외상 경험	외상경험			2	2				1	5
	성피해		1		1				1	3
	폭력/학대	10	7		5					22
	역경경험		2							2
기타	내담자							2		2
	외국인노동자, 산육기여성 등	1	3		3	1	1			9
계		73	96	4	63	2	102	2	17	359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연구대상이 경험한 역경 중 가장 연구 빈도가 높은

것은 사회환경적 역경(45.7%)이며 그중에서도 임상장애가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한 연구가 61편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환경적 역경(22.3%)의 빈곤·저소득(39편), 결손가정(34편)이며 사회환경적 역경의 시설보호·거주(28편), 신체질병가족원이 있는 가정(23편), 다문화가정(23편), 임상수준 이하의 심리적 문제(22편)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경우 연구빈도가 높은 역경경험은 빈곤·저소득, 결손가정, 폭력·학대 순이며, 청소년은 가장 높은 역경경험이 빈곤·저소득으로 아동과 같고 다음은 시설보호·거주, 임상수준 이하의 심리적 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경우에는 신체질병 중 암, 임상적 장애 중 정신분열증·정동장애 순으로 연구의 빈도가 높았으며, 가족/부부의 경우 임상장애가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한 연구가 51편으로 역경을 경험한 가족/부부에 대한 연구 중 50%의 비중을 차지한다.

5. 연구방법의 경향

1) 연구방법

탄력성에 대한 연구논문의 연구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정수린(2013)을 참고하여 연구유형을 분류하였다.

총 6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는데 관심을 갖는 표본에 대하여 자기보고식 질문, 면접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추론하는 조사연구방법, 척도의 개발이나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척도개발 및 타당화,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관찰과 분석을 지향하는 질적 연구방법인 사례연구, 연구주제나 연구방법, 개입접근이나 기법의 경향성, 효과 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 연구동향 및 분석, 연구문제와 관련된 기존연구의 결과나 문헌을 수집하거나 검토, 분석하여 새로운 접근이나 모델을 소개하거나 논평하거나 관련주제에 대한 현상을 고찰하는 이론 및 고찰연구방법이다. 또한 실험집단을 선정하고 구조화된 연구방법을 적용

하여 통계적 처리에 의해서 효과를 증명하는 탄력성 증진을 위한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로 분류하였다.

연구방법분석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는데, 조사연구를 이용한 방법이 818편(80.3%)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는 23편으로 2.3%이며, 사례연구 29편 2.8%, 연구동향 및 분석 3편 0.3%, 이론 및 고찰연구 20편 2.0%, 탄력성 증진을 위한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 126편 12.4%를 차지하였다. 선행연구인 전인경(2007)에서도 기준은 다소 다르나 탄력성과 관련된 변인 연구의 비중이 79.0%로 전체 연구 수는 증가하였으나 주된 연구방법과 비중이 일치하고 있다.

<표 10> 연구방법

구분	빈도	백분율(%)
조사연구	818	80.3%
척도개발 및 타당화	23	2.3%
사례연구	29	2.8%
연구동향 및 분석	3	0.3%
이론 및 고찰연구	20	2.0%
탄력성 증진을 위한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	126	12.4%
합계	1,01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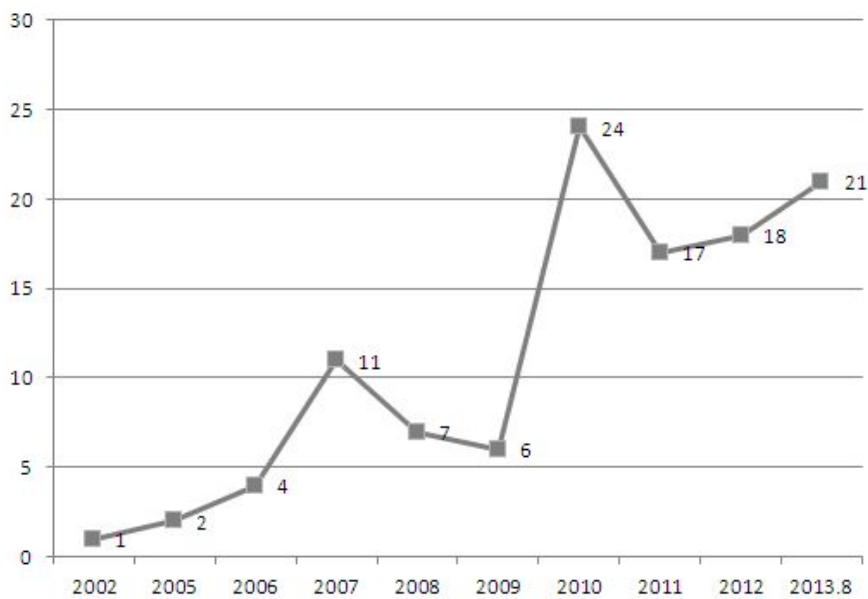
6. 탄력성 증진을 위한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 동향분석

1996년부터 2013년까지 발표된 탄력성에 대한 연구논문 중 탄력성이 종속 변인인 실험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수집 결과 탄력성에 대한 실험

논문은 총 126편이었으나 이중 13편은 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2편은 탄력성이 종속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최종분석에 사용한 논문은 석사 학위논문이 84편, 박사학위논문 20편, 학술지 발표논문 7편으로 총 111편이다.

1) 발표연도에 따른 동향

탄력성의 개념과 차원에 따라 자아탄력성, 탄력성, 가족탄력성, 학교적응유연성 기타로 구분하여 탄력성 증진을 위한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논문의 발표연도의 편수를 <그림 6><표 14>에 제시하였다. <그림 6>을 보면, 2002년에 탄력성 증진을 위한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가 최초로 발표되었으며 그 이후로 증가추세를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007년도에 11편(9.9%)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8년, 2009년에는 다소 미진하였다가 2010년도에 24편(21.6%)으로 가장 높은 편수가 발표되었다. <표 14>를 보면 이중 자아탄력성이 종속변수인 탄력성 증진을 위한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가 18편으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6>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 동향

<표 14>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의 탄력성 하위차원별 동향

연도	자아탄력성	탄력성	가족탄력성	학교적응유연성	기타 (커플탄력성)	계(%)
2002	0	0	0	1	0	1(0.9)
2005	1	0	0	1	0	2(1.8)
2006	3	0	0	1	0	4(3.6)
2007	4	1	2	4	0	11(9.9)
2008	4	2	0	1	0	7(6.3)
2009	5	1	0	0	0	6(5.4)
2010	18	2	2	2	0	24(21.6)
2011	12	2	3	0	0	17(15.3)
2012	14	1	1	2	0	18(16.2)
2013.8	17	1	1	1	1	21(18.9)
계(%)	78(70.3)	10(9.0)	9(8.1)	13(11.7)	1(0.9)	111(100)

전체 탄력성 증진을 위한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논문 중 자아탄력성이 종속변인인 연구논문이 78편(70.3%)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학교적응유연성 13편(11.7%), 탄력성 10편(9.0%), 가족탄력성 9편(8.1%) 순이었다.

2) 연구대상의 동향

(1) 연구대상의 수

전체 탄력성 증진을 위한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논문 중 11명에서 20명 이하의 대상을 연구한 논문의 수가 40편(36.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1명에서 10명이하의 연구대상이 34편(30.6)으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1명~30명의 연구대상은 18(16.2%), 31~50명은 12(10.8) 순이었으며 51명 이상의 비중은 낮았다. 100명 이상의 3편 중 2편은 학교적응유연성 연구논문이었다. 연도별 개입의 연구대상

수는 <표 15>와 같다.

<표 15> 개입의 연구대상 수

년도	연구대상 수						계(%)
	1~10명	11~20명	21~30명	31~50명	51~100명	100명 이상	
2002	0	1	0	0	0	0	1(0.9)
2005	0	2	0	0	0	0	2(1.8)
2006	0	3	1	0	0	0	4(3.6)
2007	1	6	2	1	0	1	11(9.9)
2008	2	2	2	0	1	0	7(6.3)
2009	1	1	3	1	0	0	6(5.4)
2010	12	4	3	4	1	0	24(21.6)
2011	4	7	2	3	1	0	17(15.3)
2012	6	7	3	1	0	1	18(16.2)
2013.8	8	7	2	2	1	1	21(18.9)
계(%)	34(30.6)	40(36.0)	18(16.2)	12(10.8)	4(3.6)	3(2.7)	11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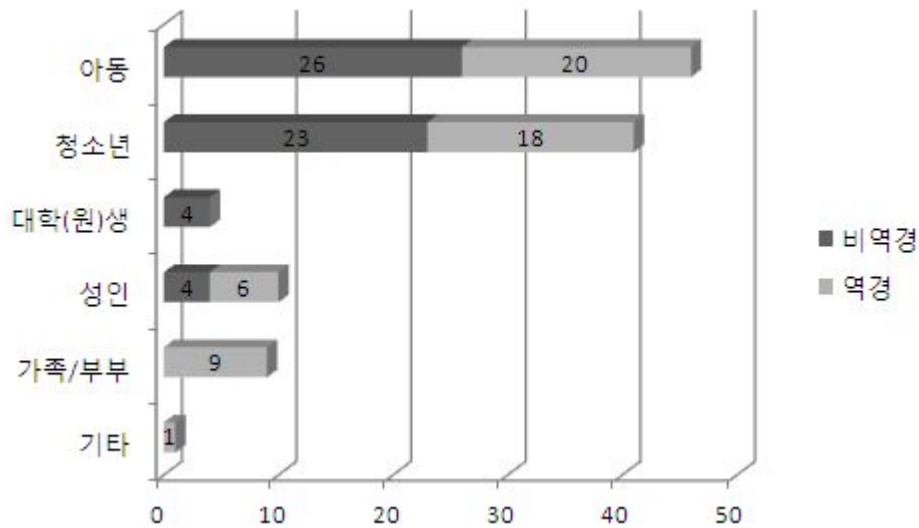
(2) 연구대상 및 역경경험

아래 <표 16>에 의하면 전체 탄력성 증진을 위한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 논문의 연구대상 중 아동 46편(41.4%), 청소년 41편(36.9%)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전체 탄력성 연구논문의 연구대상 또한 청소년 334편(32.6), 아동 268(26.1) 순으로 아동청소년이 주된 연구대상이 되고 있으며 탄력성 증진을 위한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에서 더욱 비중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탄력성의 초기연구는 주로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아동청소년은 정신적, 신체적 성장발달 중에 있으며 변화의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 16>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의 발표연도 및 연구대상에 따른 동향

연도	아동	청소년	대학(원)생	성인	가족/부부	기타	계(%)
2002	0	1	0	0	0	0	1(0.9)
2005	1	1	0	0	0	0	2(1.8)
2006	1	3	0	0	0	0	4(3.6)
2007	4	5	0	0	2	0	11(9.9)
2008	4	2	0	1	0	0	7(6.3)
2009	3	2	0	1	0	0	6(5.4)
2010	11	8	1	2	2	0	24(21.6)
2011	7	4	2	1	3	0	17(15.3)
2012	10	6	0	1	1	0	18(16.2)
2013.8	5	9	1	4	1	1	21(18.9)
계(%)	46(41.4)	41(36.9)	4(3.6)	10(9.0)	9(8.1)	1(0.9)	111(100)

<그림 7>에 연구대상의 역경경험을 보면, 가족/부부의 경우 모두 역경경험이 있는 대상을 연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 20편(43.5%) 청소년 18편(43.9%)으로 절반에 가까운 연구논문이 역경을 경험한 대상을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의 역경경험의 성격에 따른 분류를 <표 17>에 제시하였다.



<그림 7>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의 대상별 역경경험

<표 17>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의 연구대상별 역경경험

역경내용		아동	청소년	성인	가족/부부	기타	계(%)
임상적 장애	발달장애 및 지체장애			1			1(1.9)
	정동장애/정신분열증			1			1(1.9)
임상수준 미만 심리적 문제		3	7				10(18.5)
신체장애			1	1			2(3.7)
신체 질병	암	2		2			4(7.4)
	만성질환	2					2(3.7)
	기타질환(뇌경색)					1	1(1.9)
경제 환경 문제	빈곤/저소득	3	6				9(16.7)
	결손가정	2	1				3(5.6)
	기타(복합)	3	1				4(7.4)
사회 환경 문제	다문화가정	1					1(1.9)
	임상장애 가정	1			6		7(13.0)
	신체질병 가정				3		3(5.6)
	이혼가정	1					1(1.9)
시설보호 및 거주		2	2				4(7.4)
외상	성피해			1			1(1.9)

경험						
계(%)	20(37.0)	18(33.3)	6(11.1)	9(16.7)	1(1.9)	54(100)

<표 17>에 의하면 연구대상이 경험한 역경 중 가장 연구 빈도가 높은 것은 임상수준 미만의 심리적 문제(18.5%)이며 특히 청소년의 비중이 높았다. 다음으로 경제환경적 문제의 빈곤 • 저소득(16.7%), 사회환경적 문제의 임상장애가족원이 있는 가정(13.0%)순으로 많이 연구되었다.

3) 개입의 운영특성

탄력성 증진을 위한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의 개입을 주회기, 회기 당 시간, 총 회기 수, 총 실시시간에 따라서 분석을 <표 18>에 제시하였다. 또한 개입을 탄력성의 하위차원별로 구분하여 <표 19>로 나타냈다.

<표 18>를 보면 개입은 한 주에 2회기 실시하는 경우가 45.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2회기(26.1%), 주3회기(7.2%), 주1회기 혹은 2회기(7.2%) 순이었다. 회기 당 시간은 30~60분이 63.1%로 가장 많았는데 연구대상 중 비중이 높은 아동청소년은 활동에 흥미를 갖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으며 학교에서 실시할 경우 수업시간에 맞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은 91~120분(16.2%), 61~90(11.7%) 순이었다. 총 회기 수는 8~12회기가 66.7%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13~20회기(19.8%), 21회기이상(8.1%), 8회기 미만(5.4%) 순이었다. 총 실시시간은 8시간 이상 16시간 미만(45.9%)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16시간~24시간 미만(18.0%), 8시간 미미만(15.3%), 24시간 이상(13.5%)이 뒤를 이었다. 개입시간의 최대치는 45시간이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개입은 주 2회(45.9%), 30~60분(63.1%), 8~12회기(66.7%), 8시간 이상~16시간(45.9%)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DK로 표기된 것은 논문의 연구방법, 연구결과, 논의부분에서 확인 할 수 없었던 경우이다.

<표 18> 개입의 기본사항에 대한 분석

분석내용	구분	편수	%
주회기	1일 여러회 / 매일	6	5.4%
	1	29	26.1%
	2	51	45.9%
	3	8	7.2%
	4	2	1.8%
	5	1	0.9%
	1 or 2	8	7.2%
	2 or 3	5	4.5%
	DK	1	0.9%
	회기 당 시간(m)	30~60	70
61~90		13	11.7%
91~120		18	16.2%
121~180		2	1.8%
DK		8	7.2%
총 회기 수	8 회기 미만	6	5.4%
	8~12회기	74	66.7%
	13~20회기	22	19.8%
	21회기 이상	9	8.1%
총 실시시간	8시간 미만	17	15.3%
	8시간~16시간 미만	51	45.9%
	16시간~24시간 미만	20	18.0%
	24시간 이상	15	13.5%
	DK	8	7.2%

<표 19> 탄력성의 하위차원별 개입분석

구분	자아탄력성	
집단 프로그램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19
	미술치료	9
	놀이치료	4
	연극/드라마치료	4
	자아탐색/자기성장	3
	모래놀이치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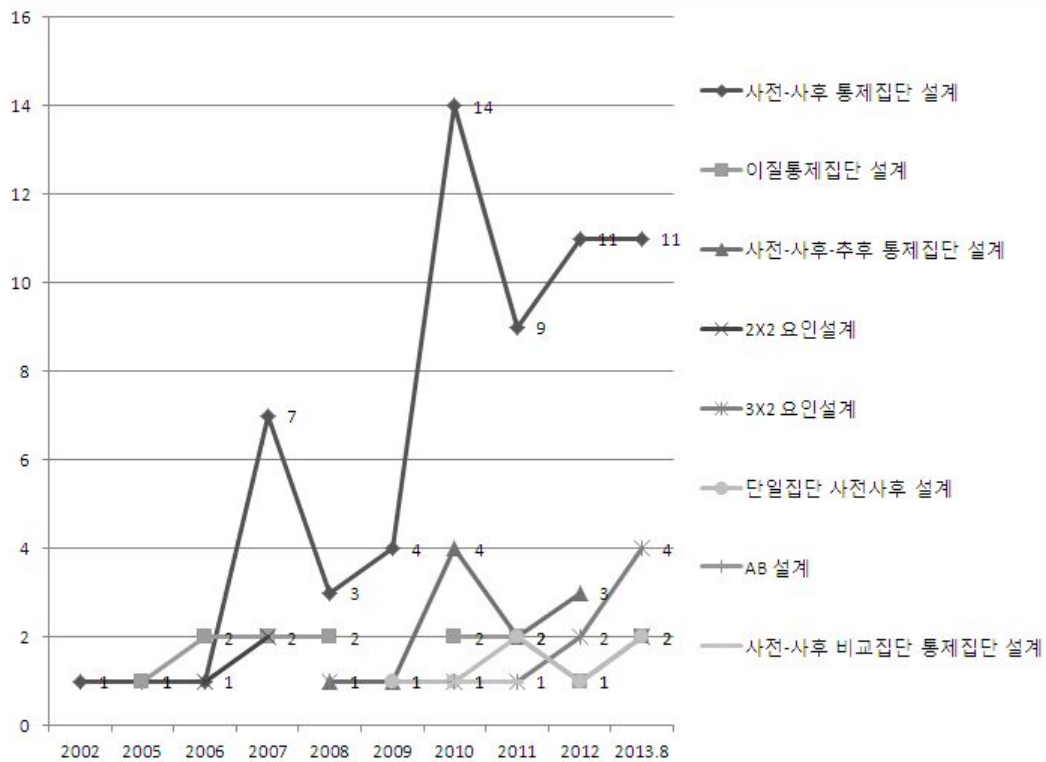
	사물놀이치료	1
	문학/이야기치료	4
	대인관계/사회기술 향상	3
	낙관성/긍정심리	4
	저널치료	1
	해결중심프로그램	3
	음악치료	1
	현실치료 또래상담	1
	교류분석	2
	웃음/유머	2
	마음공부	2
	인지행동	2
훈련 및 교육	실천적 기술가정 교과교육	1
	감사교육	1
	영성지향 평화교육	1
	미술교육	1
	체육관련(교과교육, 승마, 요가, 댄스스포츠, 배드민턴)	5
	퇴원교육	1
	인문학	1
	부모역할	1
계	78	
탄력성		
집단 프로그램	탄력성 증진	1
	낙관성/긍정심리	2
	마음챙김명상	1
	원예치료	1
	자아탐색/자기성장	1
	도형프로그램	1
	문학/이야기치료	1
	에니어그램 진로프로그램	1
훈련 및 교육	장애이해교육	1
계	10	
가족탄력성		

	가족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6
집단 프로그램	미술치료	1
	원예치료	1
	인지행동	1
	계	9
학교적응유연성		
집단 프로그램	학교적응유연성증진	2
	낙관성/긍정심리	2
	내적발달자산 증진	1
	대인관계증진	1
	해결중심 음악치료	2
	멘토링	1
	자아존중감 향상	1
	현실요법	1
	훈련 및 교육	바이오피드백훈련
학교폭력예방		1
계	13	
기타	커플탄력성 증진	1
전체합계		111

<표 19>을 보면 탄력성 증진을 위한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 개입에서 뚜렷하게 비중이 높은 개입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양한 이론적 배경과 도구로서 접근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이 이루어진 개입은 자아탄력성의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19편)이며, 그 다음으로는 가족탄력성의 가족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이다.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탄력성 구성요소의 향상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실시한 연구논문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개입에서 탄력성 외 종속변인을 살펴보면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39편(35.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우울 9편(8.1%), 대인관계 8편(7.2%), 불안 5편(4.5%), 스트레스 5편(4.5%), 자아존중감 5편(4.5%) 순이었다.

4) 연구방법

탄력성 증진을 위한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의 연구설계와 자료의 통계분석방법을 <표 20>에 제시하였다. 연구설계를 살펴보면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가 62편(55.9%)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그 다음은 이질통제집단 설계(12.6%), 사전-사후-추후 통제집단 설계(9.9%), 사전, 사후, 추후의 검사시기(3)와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집단(2)의 3X2 요인설계(8.1%),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6.3%) 순으로 사용되었다. <그림 8>를 보면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의 사용이 가장 우세하며 기복이 있으나 대체로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에서 추후검사를 추가한 사전-사후-추후 통제집단 설계는 2008년도에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2010년도에 4편이 발표되었고 그 이후로도 5편이 발표되었다. 3X2 요인설계 또한 2008년에 처음으로 사용되어 2013년 8월까지 4편의 연구논문이 확인되어 앞으로 연구설계 방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림 8>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의 발표연도별 연구 설계방법

단일집단 사전사후설계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2009년~2013년에 분포해있는데 7편의 연구논문 중 5편의 논문이 대상이 10명 이하로 모두 암, 성피해 등의 역경경험대상이다. 이로 미루어볼 때 대상자 모집과 통제집단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여겨진다. 5편의 연구의 통계기법을 살펴보면, 2편의 연구는 집단구성원이 적으므로 Wilcoxon signed ranks test로 검증하였으며 3편의 연구는 기술통계와 질적검사를 사용하였다. 질적검사로써 그림투사검사가 사용되었는데, K-HTP와 KFD, 빛속의 사람, KFD 였다.

탄력성 증진을 위한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논문에서 사용된 통계분석은 t-test 가 29.7%의 비중으로 나타나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방법으로 밝혀졌다. 그 다음으로 변량분석(14.4%), 공변량분석(12.6%), 변량분석과 Tukey HSD(9.9%), t-test와 공변량분석(8.1%) 순으로 사용되었다.

<표 20>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 설계와 자료의 통계분석

분석내용	구분	편수	%
연구 설계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	62	55.9%
	이질통제집단 설계	14	12.6%
	사전-사후-추후 통제집단 설계	11	9.9%
	2X2 요인설계	5	4.5%
	3X2 요인설계	9	8.1%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	7	6.3%
	AB 설계	1	0.9%
	사전-사후 비교집단 통제집단 설계	2	1.8%
통계 분석	기술통계	5	4.5%
	변량분석	16	14.4%
	t-test	33	29.7%
	공변량분석	14	12.6%
	Mann-WhitneyUtest	4	3.6%
	Wilcoxn signed ranks test	5	4.5%
	t-test + 공변량분석	9	8.1%
	t-test + 변량분석	6	5.4%
	변량분석 + Tukey HSD	11	9.9%
	변량분석 + 공분산분석	1	0.9%
	공변량분석 + Wilcoxon signed ranks test	1	0.9%
	t-test + Mann-Whitney U test	1	0.9%
	Mann-Whitney U test + Wilcoxon signed ranks test	5	4.5%

V. 논의

1.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1996년부터 2013년 중반기까지의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832편과 학술지 논문 187편, 총 1,019편을 대상으로 경향 및 동향을 알아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표연도에 따른 동향을 보면 1997년부터 2013년 중반기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0년 이후로 탄력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여 2010년부터 2013년 중반기까지의 연구가 58.2%의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2011년에는 140편(13.7%)였으나 2012년에는 182편(17.8%)으로 눈에 띄는 증가를 보였으며 2013년도에는 중반기까지 조사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14.1%의 비중을 나타냈다. 이는 탄력성에 대한 다양한 학계의 관심을 나타낼 뿐 아니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탄력성의 하위차원 중 자아탄력성(50%)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으며 그다음으로 탄력성(28.6%), 가족탄력성(12.2%), 학교적응유연성(8.5%), 기타(0.7%) 순이었다. 국내에서 Resilience의 용어사용에 있어서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적응유연성(30.9%), 탄력성(29.2%)의 사용빈도가 높았다.

연구논문에 사용된 척도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 척도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Block과 Kreman(1996)의 Ego-Resiliency Scale이었으며, 탄력성 척도 중에는 이해리와 조한익(2006)의 척도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가족탄력성은 크게 Walsh(1998)의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한 것과 McCubin과 McCubin(1993)의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한 것으로 나뉘었는데, Walsh의 이론을 바탕으로 김미옥(2001)이 구성한 척도가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다. 학

교적응유연성 척도로는 Hernandez(1993)가 개발하고 박현선(1999)이 수정, 보완한 검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한편 척도사용에서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능력을 측정하였으나 Resilience 용어를 사용한 연구(17.8%)와 반대로 개인내적요소와 외적요소를 측정하였으나 Ego-Resilience 용어를 사용한 연구(0.02%)가 있어 탄력성과 자아탄력성간의 용어혼재가 다소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학문분야별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교육학분야가 42.3%로 가장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학(26.2%), 심리과학(15.0%), 의약학(8.1%)으로 이어졌다. 탄력성 하위차원별 연구는 심리과학분야와 교육학분야의 경우 자아탄력성의 연구비중이 가장 높았다. 사회복지학분야에서는 비교적 균일하게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약학 분야는 탄력성의 연구비중이 가장 높았다.

넷째, 연구대상별 연구동향은 청소년(32.6%)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동(26.1%), 성인(15.5%), 가족/부부(12.0%), 대학(원)생(7.0%), 상담자(1.5%), 그리고 노인(1.4%), 내담자(0.2%)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연구대상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노인에 대한 연구는 저조했다. 연구대상은 역경경험대상과 역경경험여부를 달리 구분하지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역경은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하였다. 연구대상이 경험한 역경 중 가장 연구 빈도가 높은 것은 사회환경적 역경(45.7%)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연구방법으로는 조사연구방법이 80.3%로 현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인 전인경(2007)에서도 탄력성과 관련된 변인연구 비중이 79.0%로 시간의 흐름에도 주된 연구방법의 비중이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탄력성 증진을 위한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는 2002년에 최초로 발표되었으며 현재까지 연구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다. 탄력성의 하위차원 중 자아탄력성이 종속변인인 연구논문이 70.3%로 가장 많

왔다. 연구대상을 보면, 아동(41.4%)과 청소년(36.9%)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 탄력성 연구보다 역경경험 대상의 비중이 높았다. 가장 연구 빈도가 높은 역경경험은 임상 수준 미만의 심리적 문제(18.5%)로 나타났다.

또한 11명~20명 이하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연구 초기부터 꾸준히 많았으며 1명~10명 이하의 소규모 집단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입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 2회기(45.9%)를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회기 당 30~60분(63.1%), 총 회기 수는 8~12회기(66.7%), 8시간 이상 16시간 미만(45.9%)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탄력성 증진을 위한 개입의 효과성 검증 연구의 개입은 다양한 이론적 배경과 도구로서 접근되었던 것으로 나타나 뚜렷하게 비중이 높은 개입이 드러나지 않았고, 개입에서 탄력성 외 종속변인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35.1%)가 가장 많았다.

연구설계는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55.9%)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자료의 분석방법으로는 t-test 가 29.7%의 비중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방법으로 밝혀졌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본 연구는 국내에 발표된 탄력성에 대한 학위논문 및 학술지 기사를 중심으로 1996년부터 2013년 중반기까지의 탄력성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탄력성에 대한 관심은 국내에 소개된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 이후로 탄력성에 대한 연구편수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 탄력성의 개념이 국내에 소개되고 연구된 지 아직 10년이 되지 않았으나, 발표된 연구논문의 수가 1000편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탄력성 연구를 정리하였으며, 분석대상을 국한시키지 않고 탄력성의 하위차원까지 모두 포괄하여 탄력성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을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탄력성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어 왔던 것은 탄력성의 개념이 등장한 이후로 널리 인정된 탄력성의 정의가 없으며, 광범위하게 정의됨으로서(Fraser, Richman, & Galinsky, 1999; Gordon & Song, 1994) 야기되는 연구의 혼란이다. 탄력성은 단일구성체가 아닌 여러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 정의와 구성개념에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Luthar 등(2000)은 정의와 구성개념의 불일치와 공통적으로 함의되고 검증된 척도의 부족은 복합적 개념인 탄력성을 포괄적이고 일치된 수준의 변수로 측정하지 못하고 각기 다양한 하위개념으로 측정하게 하는 문제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또한 이해리와 조한익(2005)은 탄력성을 개인의 고정적 특징으로만 규정하거나, 자아탄력성과 외적 보호요인을 구별하지 않거나, 학업성적과 같은 유능성을 탄력성으로 보는 관점 등이 혼재하고 있으며 특정영역에 한정된 탄력성을 개념화하고 측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결과 여러 학자들이 지적했던 문제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척도를 살펴보았을 때 일치된 수준의 변수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족탄력성 척도는 Walsh의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하는 척도와 McCubbin의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하는 척도로 크게 두 줄기로 나뉘는데, 연구마다 각 하위변수에 따라 지정하는 척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일부 하위변수만을 측정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되었다. 한편 국내연구 중 탄력성과 보호요인이 구별되지 않거나, 적응의 결과를 탄력성으로 본 연구는 12편(0.01%)으로 이와 관련된 문제는 적을 것으로 간주된다.

Resilience 용어의 통일성을 살펴볼 때,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학교적응유연성은 통일성이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resilience 의 경우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는데, 탄력성, 적응유연성이 거의 동등한 비중으로 사

용되었고 그 뒤로 회복탄력성, 극복력 순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었다. ‘극복력’의 경우 간호학과 학위논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등의 용어사용의 특색이 있지만, 용어의 통일성을 갖추는 것이 정의와 구성개념의 일치로 나아가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사용된 척도와 용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자아탄력성과 탄력성 개념의 혼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혼재는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측면을 살펴보면, 분석결과 특정 역경을 겪는 대상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역경을 겪지 않은 대상의 연구비중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탄력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반드시 역경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며 어떤 대상의 특수한 속성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고 기능을 유지하도록 기제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삶에서 스트레스와 역경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포괄주의적 관점에서 탄력성 연구는 모든 대상으로 가능하며, ‘마음의 근육’이라고도 불리며 학문분야 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관심을 받고 있다. 기존의 상담 등의 치료적 개입은 병리모델의 연장선상으로 ‘문제의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로 인하여 상담 받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굳어져 있기에 한편에서는 상담을 꺼리는 경향도 존재한다. 탄력성의 개념은 내적자원의 증진과 예방으로서의 개입으로서 현 상황의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심리학뿐만 아니라 교육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예술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탄력성의 개념과 가능성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곧 학문적인 관심뿐 아니라 각 분야가 상대하는 대상들의 요구와도 연결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와 요구를 고려하여 실천적인 개입과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탄력성 연구대상에서 아동청소년의 비중이 58.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탄력성 연구는 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출발했으며 또한 탄력성이 형성되어진다고 믿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으로 가장 빈번하게 채택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이상 탄력성은 고정적인 속성이

아닌 인생전반에 걸친 역동적인 과정이다. 평균수명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인생의 후반부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중장년층 및 탄력성 연구대상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노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접근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모으고자 하였으나 온라인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특성상 제외된 국내 연구논문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동향분석을 위해 선정된 분석범주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 자료를 작성하였으나 분류에 애매한 경우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개별연구에 대한 분석이 아닌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학지사
- 권애림 (2011).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가족관계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중원 (2011).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침례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계숙 (2013). 가족탄력성이 장애아동 가족의 가족관계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누리 (2008). 학교적응유연성척도 개발 및 타당화.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도현 (2012).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희 (2003). 만성질환아의 극복력 측정도구 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선 (2010). 빈곤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옥 (2001). 장애아동가족의 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수빈 (2008). 국내 미술치료연구 동향 : 한국미술치료학회 및 한국예술치료학회 학회지 게재논문 중심으로(1994.4-2007.3).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안, 민경환 (2011). 탄력성 척도의 비교 및 탄력성과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25(2), 223-243
- 김수정 (2012).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비장애 형제자매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 성인 발달장애인 가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예주 (2012). 국내 놀이치료의 연구동향과 효과-국내학회지 게재논문 (2000-2010)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서 (2011). 지적장애자녀 양육경험에 대한 어머니의 긍정적 인식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가족탄력성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민 (2010). 경제적 소외계층 아동이 지각하는 심리적 가정환경과 사회적 지지가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광웅, 최명선, 류진아, 정유진 (2006) 아동 상담 연구 동향: 학회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1997-2005). 한국놀이치료학회지, 9(3), 47-65
- 김종미, 정정분 (2005). 공감향상훈련이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의 공감과 가해 정도에 미치는 효과. 초등교육학연구, 12(1), 19-45
- 노영남 (2009). 장애이해교육 연구동향 분석 : 국내 실험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은숙 (2011).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및 통제소재와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남희 (2008). 청소년소녀가장의 탄력성: 사회적 유능성과 주관적 안녕감.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영희 (2004). 아동학대와 레질리언스. 유평출판사
- 박소영 (2012). 빈곤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재연 (2010). 청소년의 자살위기와 레질리언스.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주란 (2009). 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역경지각 및 보호요인의 관계. 한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주연 (2011).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한부모와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지현 (2009). 중년기의 가족스트레스 및 가족탄력성이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지혜 (2011). 결손가정 청소년의 탄력성, 낙관성, 긍정적 환상과 심리사회적응 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태제, 시기자 (2007). 연구방법론. 학지사
- 송순인 (2010). 정신장애인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적응간의 가족탄력성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성경, 홍세희, 최보운 (2004).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 탄력성, 애착, 실존적 영성의 매개 효과 검증. 교육심리연구, 18(1), 393-408
- 유현옥 (2010). 위기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국선 (2001). 중퇴경험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특성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미 (2011). 취학전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향 (2011). 아동학대 연구의 동향분석.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애 (2004). 만성질환아동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선영 (2007). 유아의 장애수용태도 관련 국내 실험연구 동향분석.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숙영 (2010). 가정환경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 학업스트레스, 정신건강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예승 (2004). 청소년의 학교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 여자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 손정민 (2008). 가족탄력성이 만성질환아 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7, 95-120
- 이혜리, 조한익 (2005).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개발. 한국청소년연구, 16(2), 161-206
- 이혜리 (2007). 청소년의 역경과 긍정적 적응 : 유연성의 역할.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경애 (2010).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불안 감소에 미치는 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인경 (2009). 탄력성의 국내 연구 동향 -탄력성의 영향을 받는 변인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혜련 (2009). 가족탄력성이 뇌졸중환자 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혜민 (2007). 빈곤가정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정주 (2009). 가족탄력성이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진아 (201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탄력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에스더 (2012). 가족기능과 학교적응유연성의 관계에서 자기결정성이 미치는 영향: -서울시 교육복지지원 중학교를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정남 (2007). 알코올중독자가 지각하는 가족탄력성이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Cyrułnik B. (2006). 불행의 놀라운 치유력. (임희근 역). 북하우스 (원전은 2002년에 출판)

Greene(ed), R. R. (2004). 사회복지와 탄력성, (양옥경 외 5인 공역). 나눔의 집. (원전은 2002에 출판)

Henderson N., Milstein M. M. (2008). 학교사회복지와 탄력성, (장승욱 역). 학지사 -

ABSTRACT

The Trends of Resilience Research in Korea – with Family Resilience and Academic Resilience –

Choi, Eun Gi

Major in Clinical Psychology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presents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the field of resilience published in the nation from 1996 to middle 2013. The study systematically sorted out 1,019 research papers selected through an online database by the year, subdimension of resilience, academic area, subject, and methodology, identifying the overall tendencies and trends. The study also distinguished experimental researches whose dependent variable was resilience and examined and analyzed them according to the trends in the publication year, subject, characteristics of intervention, and methodology.

The results of the study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as an ongoing increase of the researches by the publication year from 1997 to middle 2013.

Second, the most popular subdimension of resilience was ego resilience, which was followed by resilience, family 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resilience in the order. The most used scale of ego resilience was the Ego Resiliency Scale by Block & Kreman(1996), and the most used scale of resilience was the one developed by Lee Hae-ri and Jo Han-ik(2006). The most frequently used family resilience scale was the one developed by Kim Mi-ok(2001) based on Walsh's theory. The most used school adjustment resilience scale was the one developed by Hernandez(1993) and revised and supplemented by Park Hyeon-seon(1999).

Third, as for research trends by the academic areas, pedagogy was most actively researched at 42.3%, being followed by social welfare(26.2%), psychology(15.0%), and medicine(8.1%) in the order.

Fourth, as for research trends by the subjects, there were the most researches on adolescents(32.6%). Of the types of adversity experienced by the subjects, social and environmental adversity(45.7%) was researched in the highest frequency.

Fifth, as for methodology, the survey research method took a considerably huge proportion at 80.3%.

Sixth, the first experimental research to increase resilience was published in 2002, and the number of such researches has consistently been on the rise. Of the subdimensions of resilience, ego resilience was a dependent variable in 70.3% of experimental research papers. As for the subjects, children(41.4%) and adolescents(36.9%) were the subjects in most researches. The adversity experience of the highest research frequency was subclinical psychological issues(18.5%). Experimental researches with the subject size of 11~20 have been conducted in large numbers since the early research days. As for the characteristics of intervention, two sessions per week(45.9%) were the most common case along with 30~60 minutes(63.1%)

per session, the total number of sessions at 8~12(66.7%), and the hours totaling 8~16(45.9%). The experimental researches approached intervention as part of various theoretical backgrounds and tools. They would not use other dependent variables than resilience in intervention in the most cases(35.1%). The most used research design was the 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55.9%). The most frequently used data analysis method was t-test(29.7%).

The study offered basic data on the overall flows of resilience researches based on those findings and discussed it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Key words : Resilience, Ego Resilience, Family Resilience, Academic Resilience

부 록

분석대상 논문목록

1	강가영 (2006). 이혼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강경희 (2012). 장애부모를 둔 비장애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충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강금여 (2013). 기혼 여성의 자원봉사 활동이 자아탄력성과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강남옥 (2012). 회복탄력성, 스트레스요인,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상관성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강명진 (2010). 시설청소년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체계적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강명희 (2013).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희망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	강민채 (2013). 레저스포츠 참가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 및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	강석기 (2006). 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관련된 가족관계 변수와 매개변수의 구조적 분석.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	강성애 (2012). 대학생의 애착 및 자아탄력성과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	강연진 (2013).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	강영미 (2008). 전문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진로장애와 자아탄력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	강은진 (2007). 시설보호청소년의 탄력성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	강정임 (2013).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관계, 심리적 독립, 자아탄력성 및 진로태도성숙 간의 구조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4	강정혜 (200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	강주영 (2013).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대인관계적 학교적응과의 관계 :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6	강중원 (2011).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침례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	강지영 (2012). 유방암 여성의 스트레스, 배우자 지지, 회복력과 대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8	강창실 (2008).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	강철 (2005).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 연구 : 학교적응유연성을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	강태원 (2008). 아동의 스포츠 활동 참여가 체력과 신체적 자기개념 및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1	강현옥, 황혜원 (2009). 여성결혼이민자가 인지하는 가족 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1(12), 55-78
22	강혜원 (2004). 소아암 환자 가족의 적응에 관한 연구 : 가족 탄력성(Family Resilience) 개념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3	강효경 (2011). 장애아동가족의 스트레스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4	고근중 (2006). 저소득 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5	고민숙 (2002). 자아탄력성, 의사결정 유형 및 성패귀인 유형과의 관계 : 애착 유형과 생활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6	고선 (2009). 학교환경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7	고순정 (2005). 아동의 애착과 자아탄력성 및 사회성과의 관계. 한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8	고아라 (2008).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아탄력성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9	고영희 (2011).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관련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0	고유미 (201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회복탄력성과 유아의 자기통제력간의 관계.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1	고윤희 (2012). 어머니 정서표현성 및 영유아 탄력성이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 성과 연령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2	고은정 (1997). 애착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3	고정미 (2012).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들의 자아탄력성과 동료지지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대전지역 장애인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4	고진하 (2012).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 신입생의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호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5	고혜진 (2005).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태도의 관계에 미치는 자아탄력성의 중재효과 및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6	공명수 (2009). 투석환자의 희망과 극복력(Resilience)에 관한 연구", 2009., 학위논문(석사). 간호과학, 21, 24-37
37	공진영 (2012). 저널치료가 성인 여성의 감사와 탄력성 및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8	곽소영 (2012). 혈액암환자의 회복탄력성과 가족지지, 불안 및 우울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9	곽은실 (2012). 가족레질리언스가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0	구경호 (2008).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1	구본진 (2008). 의미요법에 기반한 극복력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 입원한 부인암 여성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2	구슬이 (2012). 긍정정서가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 정서조절을 통한 사회적 유대감의 매개된 조절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3	구자은 (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4	구정화 (2005). 한 부모 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5	구정희 (2013).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6	구희정 (2010).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 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의 구성과 적용 효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7	권구영 (2012). 조손가정 아동의 우울감과 학교적응유연성 간 관계 : 임파워먼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논총, 14(1), 205-230
48	권려화 (2012). 바이오피드백 훈련이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9	권묘정 (2010). 예술 고등학교 무용전공학생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 및 무용능력성취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0	권미정 (201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자아탄력성, 부모지지, 학교생활적응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1	권민영 (2013). 선교사 자녀의 영적 안녕감, 긍정적 사고, 부모-자녀관계가 현지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고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2	권제원, 이해현, 송인한 (2012). 청소년 행복감에 관한 연구 : 청소년 탄력성 모델(Adolescent Resilience Model)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3(2), 39-72

53	권수현 (2010). 유치원 교사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4	권애림 (2011).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가족관계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5	권영돌 (2009). 백혈병 환자 어머니의 극복력 : Q 방법론을 적용.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6	권유경 (2010). 주양육자의 취업형태에 따른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7	권은경 (2008).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8	권일남, 김영철 (2006). 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4(2), 33-43
59	권종선 (2009). 부모의 음주정도와 고등학생 자녀의 극복력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0	권지은 (2002). 부모 및 또래 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1	권지혜 (2006).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설명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2	권태철 (2002). 청소년 비행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따른 학교적응 유연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3	권해수 (2003). 성학대 피해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4	권현지 (2011). 어머니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 아동 행동억제의 중재효과.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5	기 화, 정남운 (2004). 만성질환 아동을 둔 가족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가족 탄력성 모형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9(1), 1-24
66	김민영 (2008). 재량활동과 연계한 장애이해교육이 장애태도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7	김준덕 (201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 및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8	김경미 (2011). 대학생의 부모와의 의사소통방식과 자아탄력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9	김경민 (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25, 39-74
70	김경섭 (2007). 중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진천지역을 중심으로. 침례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1	김경수, 김화경 (2011). 부모의 양육태도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19(2), 143-170
72	김경순 (2010). 이혼 여성 한부모가족의 가족레질리언스가 모의 심리적 안녕 및 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 모자보호시설 입소자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3	김경은, 최은희 (2010).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19(4), 641-653
74	김경은 (2013). 교사의 집단치료놀이가 유치원 중일반 유아의 자아탄력성, 또래 유능감 및 교사-유아 관계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5	김경희 (2012). 노인이 경험한 연령차별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용문상당심리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6	김계숙 (2013). 가족탄력성이 장애아동 가족의 가족관계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7	김계숙 (2013).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초등학생 자녀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8	김고은 (2005). 가족탄력성이 장애아동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9	김광수 (2008). 뇌졸중노인의 노인학대와 정신건강 및 가족탄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0	김광용, 최명선, 김현주 (2005). 아동상담자의 경력, 훈련 경험에 따른 자아탄력성 및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12(4), 1-18
81	김교현, 권선중, 심미영 (2005). 초등학생의 시협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 : 자아탄력성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0(1), 113-126
82	김근면 (2006).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 어머니의 극복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3	김근혜 (2007).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성 및 부적응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4	김기영 (2009).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성향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5	김기태, 박미진 (2005). 여성 노인의 부정적인 생활 스트레스와 탄력성과의 관계 :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29, 71-90
86	김나영 (2011). 미술치료사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에 따른 심리적 소진.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7	김누리 (2008). 학업탄력성척도 개발 및 타당화.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8	김다애 (2012). 음악치료사의 자아탄력성과 역전이 관리 능력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9	김다경 (2009). 가정위탁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탄력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0	김다혜 (2010). 성인애착과 대학생 우울간의 관계:심리적 탄력성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1	김대권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2	김도현 (2012).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3	김동희 (2003). 만성질환아의 극복력(resilience) 측정도구 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4	김만영 (2007). 가족탄력성 성향에 따른 가족유형이 청각장애아동의 적응행동과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평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5	김명숙, 김성봉, 김도영, 허철수 (2012). 조선족 결혼가정아동의 사회적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 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비교교육연구, 22(1), 99-119
96	김명주 (2009). 자아탄력성 향상 프로그램의 적용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7	김명주 (2009).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8	김무년 (2012).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방어기제 및 스트레스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9	김문주 (2012). 학교적응유연성 증진 집단상담이 기능적 결혼가정 중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0	김미란 (2002). 대상관계, 자존감, 자아탄력, 자아통제와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의 관계연구. 교육연구, 15, 157-174
101	김미록 (2006). 아동이 지각한 가족체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과 비합리적 신념을 매개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2	김미선 (2010). 빈곤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3	김미숙 (2012).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사회적 지지, 생활스트레스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4	김미승 (2002). 적응유연성이 비행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5	김미영 (2011).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6	김미영 (2013). 저소득가정의 사회적 배제, 가정자원 및 탄력성의 구조방정식 모형 .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7	김미옥 (2001). 장애아동가족의 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8	김미자 (2008). 학교 적응유연성에 따른 전문계 여고생의 삶의 태도 : 빈곤 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9	김미정 (2005). 부모갈등과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내면화와 외현화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0	김미정 (2013). 특성화 고등학생들의 자아탄력성, 정서조절능력,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1	김미진 (2010). 베트남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족레질리언스에 관한 질적 연구 :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2	김미향 (2006). 자아탄력성 증진 훈련이 중학생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3	김미향 (2010). 장애아동 가족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4	김미향 (2011). 중학생용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5	김미혜 (2005). 부모에 대한 애착과 탄력성 및 불안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6	김민강 (2009).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 요인 탐색.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7	김민경 (2007). 빈곤가정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및 외로움의 관계.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8	김민경, 박경애 (2012). 다문화가족 남편의 일상생활갈등, 우울 및 가족탄력성과 결혼행복과의 관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1), 1-20
119	김민석 (2011). 대학생의 휘트니스 센터 참가가 자아탄력성, 우울증 및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20	김민선 (2006).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이점발견(Benefit-Finding)과의 관계 연구 :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1	김민아 (2005). 아동이 지각한 부모간 갈등, 자아탄력성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2	김민영 (2013).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3	김민옥 (2013).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4	김민정 (2012).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가족건강성의 영향. 한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5	김민정 (2005)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가정 및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6	김보라 (2010). 자아탄력성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7	김보라, 이규민 (2010). 부정적 생활사건,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48(3), 1-24
128	김보람 (2007). 시설보호아동의 지능 및 정서·행동특성과 자아탄력성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9	김보성, 박명실, 민윤기 (2009).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연령의 조절효과.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1(5), 2517-2526
130	김보현 (2012). 진로 성숙이 학교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1	김봉균 (2011). 정신장애인 재활성애에 가족탄력성이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2	김봉주 (2009).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과의 관계.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3	김상미 (2013). 집단놀이 프로그램이 시설보호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 초등 저학년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4	김상아 (2012).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및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5	김상운 (2012). 스노보드 선수의 회복탄력성 수준에 따른 스포츠재활 성공 및 실패 경험 탐색.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6	김상희 (2010).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및 우울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7	김선미 (2013). 적응유연성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학급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8	김선은 (2011) 초등학교 교사의 사회문제해결방식과 소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9	김선정 (2007).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0	김선화 (2012). 아동의 자아탄력성, 학업스트레스,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분석.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1	김선희 (2013). 고등학생의 감사성향이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매개효과.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2	김선희 (2011). 어머니의 역할만족도 및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이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3	김선희 (2013).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광주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4	김설화 (2012).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5	김성숙 (2012).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 및 자아탄력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7(3), 65-83
146	김성제 (2009).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 이용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 1318 happy zone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7	김성훈 (2011). 초등 체육전담교사의 적응유연성 척도 개발 및 타당성 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8(4)
148	김제라 (2009). 비장애형제가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아탄력성이 형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9	김소연 (2013). 유아특수교사의 회복탄력성 분석.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0	김소연 (2011). 청소년의 영성과 종교성향이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 가톨릭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1	김송화 (2011).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와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2	김수경 (2013). 간호사의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조직사회화의 관계.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3	김수안, 민경환 (2011). 탄력성 척도의 비교 및 탄력성과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25(2), 223-243
154	김수정 (2008). 빈곤가정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 결식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5, 9-38
155	김수정 (2012).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비장애 형제자매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 성인 발달장애인 가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6	김수진 (2013). 다문화가정 자녀의 차별경험과 언어문제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

	력성과 가족건강성의 조절효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7	김수진 (2013).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8	김수진 (2011).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9	김숙진 (2009). 연극치료가 성매매피해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정서적 안정감에 미치는 효과 및 회기과정 분석.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60	김순규 (2010). 빈곤아동·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연구에 대한 고찰. 학교사회복지, 18, 87-105
161	김순규 (2006).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발달모형 - 보호요인의 부가, 매개, 조절효과 모형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62	김순복 (2007). 낙관성 향상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63	김순희 (2013). 긍정심리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64	김승경 (2004). 이혼 가정 아동의 탄력성에 대한 위험-보호요인들간의 경로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65	김승경, 양계민 (2012).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이중언어요인, 이중문화요인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11), 147-176
166	김승돈, 김용환 (2009). 가족탄력성이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45, 7-31
167	김신래 (2007). 모 애착,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가 초등학교생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68	김신열, 김순규, 서효정 (2011). 배우자 사별노인의 우울과 적응유연성 :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31(3), 165-196
169	김신희 (2013). 중학생의 토요일 스포츠데이 참여가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0	김아름 (2013). 실업자축구선수의 개인적 특성, 지도스타일 만족도에 따른 회복탄력성 분석.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1	김아림 (2010). 자아탄력성 및 심리적 강인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2	김아연 (2011). 아동의 사교육 경험, 자아탄력성 및 부모·또래애착과 일상적 스트레스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3	김안자 (2005). 가족레질리언스가 한부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74	김예숙 (2011). 병원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감정노동 및 자아 탄력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5	김연화 (2010). 아동청소년의 일상 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과 행복감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12), 287-307
176	김영돈 (2011). 피드백을 적용한 현실치료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백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7	김영민, 임영식(2012). 민주적 양육방식, 자아탄력성 및 휴대전화의존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3(2), 273-299
178	김영수 (2010). 빈곤가정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청주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9	김영주 (2007). 가족 탄력성이 초등학교에 통합된 장애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80	김영혜 (2010). 해결중심집단프로그램이 이혼가정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 : 탄력성, 이혼지각, 부정적 정서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81	김영화 (2010). 마음챙김명상 활용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생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82	김영희, 서경현 (2011). 병원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반응 및 서비스 질의 관계..한국심리학회지, 16(2), 329-345
183	김예성, 박현선 (2007). 초등학교 또래괴롭힘 피해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3, 65-97
184	김옥선 (2005). 초등학생이 인지한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9(3), 761-777.
185	김원자 (2013). 대학생이 지각한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및 경계선 성격 간의 관계. 삼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86	김유진 (2012). 사회적 지지가 그룹홈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87	김유진 (2010). 놀이치료자의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 성향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88	김유진 (2009). 일상생활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89	김윤근 (2007). 병사들의 군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주는 보호요인과 위협요인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0	김윤나 (2008).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적응유연성에 관한 통합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1	김윤희 (2001). 부모갈등이 아동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과 통제신념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2	김은경 (2004). Resilience 개념 고찰. 논문집, 30, 77-88
193	김은경 (2008).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4	김은경 (2005). 청소년의 리더십 생활기술과 학교적응유연성과의 관계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5	김은서 (2012). 시설보호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 충북지역 아동양육시설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	김은서 (2011). 지적장애자녀 양육경험에 대한 어머니의 긍정적 인식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가족탄력성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	김은영 (2009). 자녀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의 비교연구.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	김은영 (2011). 혈액투석 환자의 극복력 : Q방법론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	김은주 (2011). 중학생의 자아분화, 자아탄력성과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	김은주 (2013).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정서행동문제의 관계 및 학업성취수준별 차이.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	김은지 (2007). 정신분열 환자의 개인사회적 기능과 가족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	김은희 (2010). 장애아동 형제자매의 정서지능 및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3	김인경 (2007). 아동의 성격유형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4	김인경 (2012). 음악치료사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5	김인성 (200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갈등과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6	김인숙 (2009). 교사의 팔로우업 유형에 따른 원장-교사 교환관계·자아탄력성·조직문화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7	김재연 (2008). 청소년의 영적성숙도와 종교성향과 자아탄력성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8	김재한 (2003). 알코올 중독자 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9	김재희 (2013). 노인차별경험이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 제주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10	김정득 (2002). 문제성 음주부모 청소년 자녀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11	김정렬 (2008). 알코올의존 노숙인의 적응유연성, 성격장애 및 변화동기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12	김정민 (2012). 가정의 위험요인 및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13	김정민 (2010). 경제적 소외계층 아동이 지각하는 심리적 가정환경과 사회적 지지가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14	김정수, 노성덕 (2003). 청소년의 자살충동과 심리사회적 변인과의 관계 : 자아탄력성, 학교만족, 가족화목, 사회적지지 및 우울과 관련하여. 대학생활연구, 21, 153-172
215	김정수 (2009). 초등학생이 지각한 학급풍토,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16	김정숙 (2010). 자아존중감 향상 집단 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및 자가지각에 미치는 효과.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17	김정자 (2013). 울산시조손가정손자녀의 가족생활특성과 우울감이 가족레질리언스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18	김정하 (2012).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19	김정희 (2006).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과 인터넷 중독성향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20	김정희 (2013). 노인의 노화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21	김종백 (2012). 학생-교사관계와 학생의 심리적 탄력성. 교육심리연구, 26(2), 523-541
222	김종인 (2007). 해결중심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23	김종혜 (2011). 지적장애아동 가족의 가족탄력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24	김주연 (2007).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25	김주연 (2012). 예비유아교사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탄력성과 대학생 적응의 관계.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26	김주희 (2006). 교류분석 집단프로그램이 시설보호청소년의 탄력성(resilience)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27	김준식 (2012). 심리극이 중년기 여성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28	김중인 (2007). 해결중심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29	김지경 (2010). 지능에 대한 신념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 자기구실 만들기와 자아탄력성을 매개변인으로. 교원교육, 26(6), 99-116
230	김지선 (2012). 놀이치료자의 성격특성과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31	김지연 (2008). 농촌 가정폭력 경험 고교생의 행동 부적응에 대한 탄력성의 조절효과 : 경남 군지역을 중심으로. 경남발전, 91, 89-105
232	김지연 (2008). 청소년의 문화성향과 분노수준, 분노표현 및 자아탄력성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33	김지연 (2009). 피학대아동의 학업적 탄력성이 비행과 학교폭력에 미치는 효과 : 도시와 농촌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0, 71-96
234	김지연 (2010). 우울증환자의 희망정도와 가족지지가 극복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35	김지연, 오경자 (2011). 부모의 과보호가 성인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30(3), 647-661
236	김지영 (2008). 초등학생이 지각한 자아탄력성, 주관적 안녕감과 스트레스 지각수준 및 대처양식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37	김지영 (2006). 출산 후 여성의 경험과 레질리언스(Resilience)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38	김지은 (2003).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유능감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39	김지인 (2013). 대장암환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40	김지현 (2010).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자아탄력성.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41	김지혜 (2011).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자아탄력성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 지역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42	김진미 (2012). 성인애착, 우울 및 탄력성의 관계. 한국의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43	김진아 (2010). 스트레스를 경험한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연성의 역할.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44	김진희 (2011). 국제 결혼한 한국 남성이 지각하는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3), 85-107
245	김초록 (2010). 자아탄력성과 긍정적 정서가 긍정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46	김충희 (2004). 내담자의 탄력성이 상담효과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47	김태현 (2012). 여중생의 우울 및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48	김택호 (2004). 희망과 삶의 의미가 청소년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49	김한성 (2013). 호텔직원의 자아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성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50	김한송 (2013). 혈액투석 환자의 희망, 우울 및 자아존중감이 극복력에 미치는 영향 .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51	김해경 (2003).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정의 구조적 결손 유무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52	김행섭 (2010). 여성한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 : 성인애착과 가족탄력성 및 실존적 영성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53	김현경 (2003). 결손가정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54	김현덕 (2012). 홀로된 노인의 위협요인과 보호요인이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이성교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55	김현미 (2012). 낙관성 향상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긍정심리, 자아탄력성, 우울, 불안,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56	김현수 (2012). 저소득층 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 보호요인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57	김현숙 (2006). 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연구. 탐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58	김현숙, 김희재, 최송식(2010).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 적응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2), 153-176
259	김현숙 (2013).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분노조절능력과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60	김현순 (2013). 청소년의 애착과 자아탄력성이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61	김현아 (2006). 새터민의 적응유연성 척도 개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62	김현아 (2011). 초등학교생의 대인관계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휴대폰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63	김현욱 (2010).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이 역량지각 및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64	김현정 (2013). 실직자의 가족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65	김현주 (2005). 놀이치료자의 자아탄력성 및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역전이 관리 능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66	김현주 (2007). 대인관계능력 증진 집단상담이 중학생의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67	김현중 (2013). 사회적지지가 가출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탄력성의 조절효과. 침례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68	김현중 (201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격려와 성격강점 및 자아탄력성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69	김현진 (2012). 놀이치료자의 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와 역전이 관리능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70	김현진 (2013). 자아탄력성이 재혼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이혼 후 적응을 매개로.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71	김형태 (2012). 그룹홈 아동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 아동복지학, 38, 211-234
272	김형태 (2011). 그룹홈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탄력성, 그리고 심리·사회적응의 종단효과. 청소년학연구, 18(11), 137-164
273	김혜경 (2008). 인문계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74	김혜경 (2013). 중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 영향요인.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75	김혜래, 류나미, 전영순 (2008). 학교징계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대한 연구 : 스트레스의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15, 77-94
276	김혜림 (2006). 자폐아동 가족 탄력성과 가족적응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77	김혜민 (2009). 아동이 지각한 부모언어통제유형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78	김혜선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일반고 및 특성화 고등학생의 비교.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79	김혜수 (2005).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완벽주의 및 자아탄력성간의 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80	김혜순 (2011). 개인적 교수효능감과 문제해결방식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 예비유아교사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5(1), 533-554.
281	김혜진 (2013).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어머니와의 심리적 분리정도와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82	김호경 (2010). 무용/동작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83	김화연 (2012). 청소년의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이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과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84	김희엽 (2011). 노인요양보호사의 적응유연성과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85	김효은 (2013). 초기 청소년의 부모애착, 역기능적 태도,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및 우울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86	김효경 (2007). Satir 의사소통훈련프로그램이 정신분열병 환자가족의 표출정서와 의사소통 및 회복

	력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87	김후조 (2011).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낙관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88	김희경 (2010). 알코올 중독자 성인자녀인 대학생의 극복력.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89	김희숙 (2013).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이 대인간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90	김희정 (2012). 콜센터 상담사의 회복탄력성과 감정노동에 관한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91	김희진 (2012). 탈북 가족의 레질리언스(Resilience)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적 특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정책과학연구, 21(2), 29-50
292	나금실, 김희재, 최송식 (2010). 외국인노동자의 가족탄력성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김해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17(2), 73-101
293	나미나 (2010).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94	나미현 (2011). 생활양식, 가족 적응 유연성,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95	나선영 (2011). 성인여성의 부모와의 유대가 불안정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96	나유민 (2011). 청소년의 또래애착 및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97	나혜리 (2012). 장애아 가족의 부모교육이 가족회복력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98	남영옥, 윤혜미 (2007). 청소년의 환경적 위협과 자아탄력성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4(2), 93-111
299	남지현 (2006).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00	남현주 (2012). 아동의 행복감과 관련된 자아탄력성과 정서조절능력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01	노경란, 허선주, 전연숙 (2012).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유연성을 매개로 한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31권(2), 269-288
302	노은선 (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03	노은숙 (2011).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및 통제소재와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04	노현주 (2011). 특수학교 시각장애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05	단두리 (2013). 자아탄력성 및 자기노출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06	도남희 (2009). 소년소녀가장의 탄력성 : 사회적 유능성과 주관적 안녕감.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07	류경희 (2007). 아동의 적응유연성과 사회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08	류규현 (2012). 적응적 및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가 우울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심리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09	류미란 (2008). 저소득 여성 한부모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310	류민정 (2012).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11	류재윤 (2012).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빈곤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12	류재중 (2007). 조손가족 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13	류진숙 (2012).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가족탄력성, 자기결정성 및 진로결정 몰입과 진로준비행동 간

	의 구조적 관계.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14	맹주아 (2008).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 및 애착유형과 행동문제, 자아탄력성,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남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15	모혜경 (2012). 가족기능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전문계 고등학생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16	문경일 (2012).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17	문성이 (2011). 청소년의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일탈행동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18	문은숙 (2010).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탄력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19	문인숙 (2013). 集團音樂治療가 調絃病 患者의 回復 彈力性과 不安, 憂鬱 및 삶의 質에 미치는 效果.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20	문학모 (2013).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서비스 만족도가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21	문희복 (2010). 민간경비원의 경호무도 수련유형이 자아탄력성과 직무수행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22	문희성 (2013). 정서노동근로자의 자아탄력성이 내재적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23	민그래 (2013).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간의 관계.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24	민동일 (2007). 청소년의 가정건강성, 학교생활건강성 및 자아탄력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25	민자경 (2013). 시설양육 청소년의 양육장소 변경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탄력성과 안정대인자원의 조절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26	민필홍 (2004). 강남 및 강북 중학교 여학생의 공격적 행동과 학교적응 유연성의 변인들에 대한 연구 : 인구통계학적 개인특성, 가정, 학교, 종교, 인성, 친구관계를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27	민현순 (2007). 뇌손상자 가족적응 향상을 위한 가족탄력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28	박경옥 (2009). 중학생의 가정환경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29	박경희 (2012).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위험요인과 적응유연성 조절효과 검증.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30	박계림 (2013). 청소년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31	박계숙 (2013). 신규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자아탄력성과 이직의도와와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32	박계연 (2010). 신병의 자아탄력성 및 병영 스트레스에 미치는 집단원예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33	박국중 (2007). 한부모가정 초등학생의 적응유연성과 관련된 개인적 측면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34	박래석 (2009). 아동의 위험요인과 적응유연성 관계에서 통합적 서비스 매개 효과 :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35	박명선 (2011). 아동의 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36	박명희 (2008). 초기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모형 구축.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37	박미경 (2013).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집단따돌림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38	박미나 (2013). 초등학교의 부적응행동 감소와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자기조절상담 사례연구. 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39	박미숙 (2005). 장애아동가족의 가족탄력성과 비장애형제자매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40	박미진 (2006). 노인 우울 예방을 위한 탄력성증진모형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41	박민서 (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적응유연성 간 관계 : 심리적 행복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5), 393-402
342	박민지 (2011). 아동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43	박범식 (2008). 외국인노동자 가족의 적응유연성(resilience)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44	박보경 (2013). 대학생의 탄력성, 삶의 의미, 의도적 반추 및 외상 후 성장의 관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45	박상희 (2010). 초등학교의 자아탄력성, 실패내성, 학교적응 관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46	박재와 (2012).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희망감 및 사회적지지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47	박서연, 김영숙 (2010).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및 내재화 문제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23(1), 17-32
348	박서윤 (2013). 다문화가정의 가족탄력성과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 : 베트남결혼이주여성과 한국남성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49	박선미 (2011). 마음챙김에 근거한 인지행동집단치료가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불안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50	박선영 (2011).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51	박선자 (2011). 사회복지사의 자아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52	박선희 (2010). 고등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자아탄력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53	박선희 (2012).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과정 드라마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54	박성희 (2012). 영재 중학생의 학년과 영역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 성숙도와의 관계.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55	박세경 (2009). 가족의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현황과 발전과제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의 지역개발형 사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151, 18-28
356	박소영 (2012). 빈곤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57	박소영 (2013). 알코올의존자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58	박수영 (2013). 연변지역 조선족 조손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 누적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59	박수영 (2010). 학교 적응유연성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 전문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60	박수진 (2009).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탄력성.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61	박순영 (2013).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62	박순주 (2012). 빈곤아동의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자기조절학습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63	박순주 (2010). 초등학교생이 지각한 교사행동과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도와의 관계.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64	박순희 (2009). 다문화가족 자녀의 적응유연성 연구. 동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65	박슬기 (2010). 집단미술치료를 통한 소아암 환자의 극복력 향상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66	박연희 (2013). 圓佛敎 마음공부 프로그램이 일 中學生의 스트레스對處方式, 自我彈力性 및 精神健康에 미치는 效果.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67	박영애 (2009). 중학생이 지각한 자아탄력성과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연구. 선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68	박영애 (2010). 스트레스와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 보호시설 청소년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69	박옥숙 (2011).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직무만족도의 관계분석.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70	박원주 (2007). 문학치료적 중재가 결손가정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71	박용순, 석말숙 (2002).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가족 레질리언스(Family Resilience)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행정학, 6, 119-144
372	박우영 (2008). 문제음주자 자녀의 학교적응유연성, 자동적 사고 및 방어성숙도의 특징,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73	박원덕 (2009). 가족탄력성이 지적장애가족의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74	박원주 (2011). 자아탄력성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 인지적 정서조절과 긍정 및 부정정서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75	박유미 (2010). 저소득 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 지역아동센터 아동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76	박유숙 (2001). 남편의 폭력이 아내의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 : 자아 탄력성, 대처양식, 사회적 지지를 중재변인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77	박유진 (2012).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안녕감과 자아탄력성.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78	박은영 (2011). 가족탄력성이 장애아동 가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79	박은영 (2013). 범죄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가족탄력성, 사회적 지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80	박은진 (2013). 여성 갑상선암 환자의 스트레스와 극복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81	박은진 (2013).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82	박은혜, 전셋별 (2010). 유치원 교사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요인과 보호요인 탐색. 한국교원교육연구, 27(1), 253-275
383	박은희 (1997). 자아탄력성(Ego-Resiliency), 지능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84	박인실 (2006). 소년원 학생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85	박인경 (2007). 한국 이혼자녀의 가족 Resilience에 대한 사례연구 : 가족과정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86	박재규 (2013). 성인의 운동참여정도가 회복탄력성 및 운동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건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87	박재연 (2010). 학교폭력이 청소년 우울 및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 :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1(1), 345-375
388	박재연 (2010). 청소년의 자살위기와 레질리언스.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89	박정숙 (2013). 회복탄력성이 노인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90	박정순 (2009). 사회적 지지가 탈북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기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91	박정희 (2010). 부모갈등과 초등학생의 표출 불안과의 관계 : 자아탄력성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17(12), 27-48
392	박정희, 박정미 (2010).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시험불안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6), 125-134
393	박중명 (2010).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자아탄력성과 학업성적 및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94	박중현 (2013).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자아탄력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95	박주란 (2009). 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역경지각 및 보호요인의 관계. 한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96	박주연 (2011).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한부모와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97	박주영 (2011).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반응 및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98	박준희 (2010).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성에 대한 모둠별 원예활동의 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99	박지선 (2009).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00	박지아 (2002). 적응 유연성과 영적 안녕 및 부모애착 간의 관계 : 적응유연 청소년, 위험 청소년, 유능 청소년의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01	박지영 (2011). 치료적 사물놀이 활동이 시설보호아동의 자아탄력성 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02	박지은 (2008). 결혼이주 여성의 건강증진 실천행위와 적응유연성.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03	박지현 (2009). 중년기의 가족스트레스 및 가족탄력성이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04	박지현 (2009). 어머니 역할만족도와 유아의 자아지각 및 심리적 건강성.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05	박지혜 (2011). 결혼가정 청소년의 탄력성, 낙관성, 긍정적 환상과 심리사회적응 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06	박지혜 (2013). 자아탄력성 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07	박진경 (2009).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자기통제력,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08	박진성, 박은희 (2010). 유아·가족 배경변인과 가족탄력성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4(1), 203-225
409	박진영 (2010). 성인대학생의 학업탄력성 및 대학생활적응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6(4), 1-29
410	박초희 (2007). 소아암 환아 형제자매의 사회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회복력 요인.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11	박필현 (2013). 기혼여성이 지각한 원가족 경험이 현재의 가족 레질리언스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12	박학배 (2012).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 자아탄력성, 가족기능성, 학교생활적응성, 사회성 변수의 영향력 검증. 초당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13	박현선 (2000). 실직가정 자녀의 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 : 멘터(mentor)와 멘티(mentee)에게 미친 상호적 발달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1, 147-172
414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15	박현선 (2004). 학업중퇴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청소년상담연구, 12(2), 69-82
416	박현주, 김봉환 (2010). 상담자의 성인애착유형과 자아탄력성 및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 한국심리학

	회지, 22(1), 33-52
417	박현진 (1997). 자아탄력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 고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18	박형인 (2013).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 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내재적 동기의 차이.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19	박혜영 (2004).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20	박희숙, 이수기 (2012). 유아의 사회적 강점·난점과 교사-유아관계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6(1), 31-47
421	반금남 (2008). 사회적 기술 향상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22	방수산 (2008).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23	방준희 (2012). 개별미술치료가 소아암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24	방진희 (2012). 중·고등학교 운동선수 회복탄력성 차이분석 :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25	배 순영 (2005). 음악감상을 병행한 퇴원교육 프로그램이 뇌경색환자의 극복력과 스트레스반응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26	배수현 (2012). 감사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27	배주윤 (2009).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28	배한나 (2012). 빈곤가정 부부갈등이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 부모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29	배혜련 (2012).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지각된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30	배화옥 (2010). 아동의 학대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탄력성의 매개. 아동과 권리, 14(2), 193-217.
431	백경원 (2005). 만성질환을 가진 아동과 가족의 극복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32	백명주 (2005).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자기조절능력 및 적응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33	백미숙 (201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자아탄력성과 소진에 관한 연구 : 영적안녕의 중재효과 검증.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34	백미현 (2012). 상담자발달수준과 적응유연성이 상담자 소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35	백봉렬 (201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성, 학교적응유연성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36	백윤미 (2012). 중·고등학생의 친구관계 질, 담임교사 지지와 탄력성의 관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37	백진주 (2009).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38	백행진 (2012). 고위험 신생아 가족의 가족회복력과 적응.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39	변유경 (2005).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에 따른 자아탄력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40	서경현, 김성민 (2009).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문제음주의 관계에서의 자아탄력성의 역할.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0(2), 21-34
441	서경현, 최인 (2010). 노인환자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원, 강인성 및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반응.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15(2), 309-326
442	서병석 (2004). 장애인 형제의 사회적응에 관한 가족탄력성 효과.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43	서미화 (2008).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정서지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44	서보엽 (2011).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해결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45	서정숙 (2010). 부모 부부갈등과 기혼자녀 부부갈등의 관계에서 부모 양육태도와 기혼자녀의 자아탄력성, 성의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46	서정화 (2013). 기혼여성의 가족건강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을 매개변수로 하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47	서정희 (2012).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48	서지영 (2002). 부모이혼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유연성(Resilience)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49	서지영 (2012). 중학교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의 관계.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50	서지원 (2005). 초등학생의 모-자 애착, 자아탄력성 및 또래폭력 경험과의 관계.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51	서현지 (2011). 성폭력피해자의 귀인성향과 자아탄력성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52	서혜정 (2009). 복지관 이용 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건강증진 생활양식 및 회복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53	선희라 (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탄력성과 가족탄력성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54	성경민 (2013). 초등학생의 몰입경험과 자아탄력성 및 정서적 유능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55	성경숙 (2005). 만성질환 아동의 극복력 증진을 위한 집단치료가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56	성선진, 이재신 (2008). 자아탄력성 및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인과관계 모형 구안. 교육연구논총, 29(3), 3-44
457	성소영 (2013). 무용전공 대학생의출신고교 특성에 따른인지적유연성이 자아탄력성 및 소진감 무용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58	성영순 (2012). 고등학생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자아탄력성 및 성별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59	성경숙, 이현주 (2010). 동성애자인권활동가의 청소년기 경험과 탄력성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1, 173-204
460	성지은 (2013).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학교폭력태도, 분노 및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61	소명 (2013). 재한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62	소운조 (2008). 군인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의 상근예비역과 현역사병을 중심으로. 한일장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63	손경화 (2011).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자아회복력 및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64	손미숙 (2012). 노인의 생활스트레스가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와 용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65	손민지 (2013). 무용수들의 회복탄력성이 무용 상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66	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 (2012). 바람직한 부모 양육태도가 초기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 학교생활 적응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성차비교. 한국청소년연구, 23(1), 149-173
467	손승민 (2013). 초기 성인기의 자아개념과 회복탄력성이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68	손은희 (2009). 중학생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자아탄력성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69	손계익 (2010). 장애아동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가족탄력성의 구조적 관계 : 비장애아동 가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70	손경민 (2008). 아토피 피부염 아동 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71	손태주 (2007).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학업적 자아개념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72	손혜영, 심홍진, 황유선 (2011).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회적 지원이 청소년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 커뮤니티 소속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방송학보, 25(1), 116-158
473	송근웅 (2013). 초등학생의 자율체육 참여를 통한 회복탄력성 증진 경험.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74	송기호 (2012). 학생의 자아 탄력성 신장을 위한 사서교사와 학부모의 협력 관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2), 69-86
475	송미령 (2005). 부모의 정서적 방임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76	송미령, 김성영 (2012). 중학생의 또래 애착, 자아탄력성, 휴대폰 의존과의 관계. 청소년문화포럼, 32, 65-89
477	송사리 (2007).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78	송소원, 장석진, 이정화, 조민아 (2010). 직무 스트레스와 교사 효능감이 초등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 적응 유연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원교육, 26(4), 17-37
479	송순인 (2010). 정신장애인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적응간의 가족탄력성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80	송애자 (2012). 초등학생의 시험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불안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81	송양숙 (2004). 재가 신체장애인의 회복력 영향요인. 고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82	송영경 (2006).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및 학교적응.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83	송영명 (2011). 특목고 학생의 부모-자녀관계, 자아탄력성, 학업적 유능감이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5(3), 647-669
484	송옥선 (2006). 부모이혼을 겪은 대학생의 경험에 관한 질적 분석: 탄력성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85	송유미, 이윤형 (2009).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통한 조손가족 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0(3), 41-68
486	송지원 (200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87	송혜리 (2010).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경험 및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88	송훈화 (2011). 운전부하등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도의 차이와 자아탄력성의 조절 효과.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89	신나연 (2011). 관상동맥질환자의 건강통제위, 회복력, 사회적 지지와 건강증진행위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90	신미숙 (2013). 정신장애인 기능수준과 주부양가족원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91	신선희 (2010). 적응유연한 다문화가정 유아의 보호요인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15(6), 319-344
492	신성희 (2006). 회복력 요인을 중심으로 한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모형구축.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93	신연옥 (2007). 아동방임이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또래수용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94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4), 105-131
495	신유리 (2011). 여성장애인의 직업활동에서의 적응유연성 과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96	신윤자 (2005).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97	신은정 (2013).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유아의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98	신은정 (2012).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임상실습 스트레스.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99	신은정 (2013). 고등학생의 영교시 체육수업이 체력, 자아탄력성, 수업집중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00	신은정 (2011).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대한 사회경제지위(SES), 부모관계, 친구관계, 용서에 대한 영향력 분석.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01	신경희 (2007).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02	신경희 (2010). 청소년의 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03	신지연 (2004)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04	신한나 (2008). 성인아이성,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05	신현숙 (2003). 가정환경 역경과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 보호요소의 매개효과 검증 . 청소년상담연구, 11(2), 71-84
506	신현숙 (2003). 적응유연성 연구의 전망 : 개념 및 방법론적 문제와 학교-기반 예방을 위한 시사점. 교육학연구, 41(2), 431-456
507	신혜경 (2008). 유아교사가 인식한 유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지역사회탄력성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08	신혜원 (2005). 암환아와 어머니의 회복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09	신혜경 (2008).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10	심미경 (2003). 소아암 환아 가족의 회복력 모형 검증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11	심소숙 (2012). 남녀 고등학생의 적응유연성에 따른 집단별 특성 : 성격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12	심순애 (2007).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13	심연규 (2009). 성취동기와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14	심인옥 (2006). 학령기 만성질환아동의 극복력 증진을 위한 유머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15	심지연 (2013). 대학생의 진로의식성숙과 부모애착, 심리적 독립,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16	안도희, 김지아 (2007). 대학생의 적응유연성에 따른 집단별 특성 : 대처전략, 사회적 지지, 유능감 및 학업성적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1(1), 47-67
517	안동민 (2010). 표출정서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문제행동.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18	안미숙 (2010). 직장인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19	안선형 (2005). 아동의 통제소재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20	안세영 (2008).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21	안순옥 (2008). 가족탄력성이 재혼가족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22	안연선, 전해경 (2010). 알코올 중독자 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3), 155-174
523	안주선 (2007). 가족탄력성에 기반한 집단프로그램이 장애아동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24	안지영, 오미경, 김지신(2011). 애착이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과 친구지지의 매개 역할. 아동학회지, 32(6), 63-79
525	안진희 (2010).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발달에 따른 소진과 자아탄력성과의 차이.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26	안태용 (2012). 중년기 한국인 적응유연성척도 개발 및 타당화.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27	안혜숙 (2007). 아동이 지각한 심리적 가정환경 및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28	양계령(2008). 심리적 학대와 자아 탄력성이 복합 PTSD에 미치는 효과 :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29	양국선, 장성숙 (2001).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특성 연구 : 야간실업고등학교 근로청소년 대상.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심리치료, 13(3), 127-148
530	양국선 (2001). 중퇴경험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특성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31	양무희 (2011). 암환자 및 그 가족의 가족레질리언스 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검증.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32	양수진 (2010). 대학생의 부모 애착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33	양승연, 오정란, 권지성 (2012).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적응유연성 형성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9, 93-126
534	양영미 (2013).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아탄력성 및 청소년 우울의 관계.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35	양옥경, 김연수 (2003). 가족탄력성 증진을 위한 부모역할 프로그램 개발연구. 사회과학 연구논총, 115-147.
536	양옥경, 최명민 (2001). 한국인의 한(恨)과 탄력성(Resilience).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1, 7-29.
537	양외금 (2011).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족레질리언스가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38	양윤모 (2007). 익명의 알코올중독자모임(A.A)이 단주의지에 미치는 영향 :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39	양은혜 (2012). 가정환경 역경에 대한 학교적응유연성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40	양점미 (2011). 가족건강성 및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41	양혜경 (2010). 환경의 위험요인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42	양혜연 (2012). 부모의 언어통제와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43	양효선, 김영혜 (2011). 청소년의 수줍음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효과검증, 청소년학연구, 18(10), 187-206
544	엄소명 (2013). 어머니와 유치원 교사가 인식한 만 5세 유아의 문제행동과 자아탄력성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45	엄혜생 (2012). 과학영재 고등학생의 부모애착, 자아탄력성 및 진로장벽간의 관계.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46	여선영 (2005). 아동상담자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Burnout)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47	여은선 (2006). 시설보호 청소년의 학교적응 향상 요인에 관한 연구 : 적응유연성의 보호요소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48	여지영 (2013).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 :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49	염숙자 (2007). 타로활용 자아탐색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증진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50	오명자 (2010). 은퇴한 노인의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및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51	오석구 (2005). 초등학교 아동의 진로의식과 적응유연성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52	오순옥 (2007). 중학생의 부모 및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53	오승아, 이양희 (1999). 장애아동가족의 Resilience 관련 요인척도의 개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6(2), 21-48
554	오승환 (2006). 저소득층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결정요인 : 적응유연성 요인의 탐색. 한국아동복지학, 21, 181-205
555	오영숙 (2010).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사회극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56	오은경 (2013). 에니어그램 진로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57	오현경 (2010). 부모의 자아탄력성과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 유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58	오현경 (2013). 청소년 학업탄력성 프로그램 개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59	오현정 (2008).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60	옥복녀 (2010). 담임교사의 의사소통과 태도에 대한 학생의 지각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61	왕미정 (2013). 요가수련자의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62	왕연주(2013). 창의·인성 미술교육이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63	왕영선 (2013). 발달장애아동 가족의 가족탄력성 강화를 위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와 비장애형제를 대상으로.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64	용명선 (201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변혁적 리더십이 유아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65	우미선 (2011). 마인드풀니스와 초보 상담자 발달 수준간의 관계에 미치는 자아 탄력성의 조절효과.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66	우지연 (2013). 회복력있는 도시 : 트라우마를 다루는 공간디자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67	우현희 (2013). 유아의 사회적 기술이 문제행동과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68	위종희 (2012). 아동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구조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69	유기정 (2013). 파킨슨병 노인의 일상생활활동, 우울 및 극복력의 관계. 부산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70	유난영 (2008). 빈곤지역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위협·보호 요인과 임파워먼트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71	유미녀 (2013).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72	유병길 (2008). 청소년의 기독교신앙성숙도가 자아탄력성과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73	유선 (2012). 청소년기의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독서치료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74	유선자 (2009). 중년여성의 자아탄력성에 따른 스트레스와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75	유성경 (1999). 적응유연성 발달을 통한 청소년 비행의 예방 및 개입. 청소년상담연구, 7(1), 26-40
576	유성경, 홍세희, 최보운 (2004).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 탄력성, 애착, 실존적 영성의 매개 효과 검증. 교육심리연구, 18(1), 393-408
577	유성자 (2011). 이야기치료 집단프로그램이 품행장애 성향 청소년의 공격성, 우울 및 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78	유순옥 (2006). 삶의 목적, 인간관계, 사회적 지지가 피학대 아내들의 적응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79	유순희 (2012). 이혼 여성 한부모가족의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한 질적분석.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80	유승은, 박부진 (2010). 집단모래놀이치료가 아동의 불안감소와 자아탄력성 증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지, 14(1), 67-88
581	유승희 (2010). 아동의 부모 불안정애착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서 인지변인의 매개효과. 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82	유양 (2012). 입원 환자 가족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회복력 모형검증 : 중국 입원 환자 가족 대상으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83	유양숙 (2008). 장애인가족문제와 가족탄력성강화프로그램. 사회과학연구, 20, 201-210
584	유옥순 (2007).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학교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85	유용식 (2007). 치매노인가족의 적응에 관한 연구 :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86	유장순 (2013). 자긍심과 자아탄력성 증진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비행 성향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87	유정민 (2012). 중학생의 부적 정서,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88	유정화 (2013).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이 어머니의 회복탄력성 및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89	유지연 (2011). 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가 전문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90	유지영 (2011). 빈곤청소년의 교육복지실 이용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91	유지혜 (2012). 기술·가정 교과의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의 자기관리' 단원의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및 효과검증 : 중학생의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행복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92	유현옥 (2010). 위기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93	유현우 (2008). 청소년의 종교성숙도가 자기통제력과 자아탄력성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94	유현주 2001 청소년기 자녀행동에 대한 부모의 귀인양식과 자녀의 심리적 회복력의 관계/ 유현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95	육영숙 (2010). 감정을 표현하는 요가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정서지능 및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1(4), 123-137
596	윤경란 (200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97	윤기영 (2010). 고등학생의 가족관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

	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98	윤명희 (2007). 아동이 지각한 교사의 기대감과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학교생활 만족과의 관계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99	윤미경 (2002). 잠재적 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적응유연성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00	윤상근 (2008). 중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자아개념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01	윤상영 (2013). 아동기 학대 경험 및 부부폭력 노출 경험이 성인기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 : 회복탄력성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02	윤선아, 안귀여루, 박영숙 (2008). 적응유연성을 보이는 여자 대학생의 방어기제와 대처전략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13(4), 961-975
603	윤수희 (2005). 가족탄력성이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04	윤승립 (2009). 놀이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과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05	윤여주 (201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중학생의 자아탄력성, 분노, 분노조절 및 우울과의 관계 분석.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06	윤영미 (2009). 학교 유형별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적응의 차이.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07	윤재연 (2009). 대학 농구동아리 참가자의 운동참여동기, 자아탄력성 및 스트레스 대처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08	윤정화 (2013). 대장암 환자의 피로, 극복력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09	윤종선 (2011).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남아와 여아의 성차를 중심으로. 가천의과대학 석사학위논문.
610	윤향미 (2008). 장애아동 가족의 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의 효과를 중심으로. 침례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11	윤현희 (1998). 부모보고형 자아탄력성 척도의 개발. 부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12	윤혜선 (2010). 자아 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 탄력성과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13	이건욱 (2010). 내적통제성, 삶의 의미, 자아탄력성과 수도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14	이경미 (2011). 취약한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15	이경복 (2006). 장애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16	이경선 (2011).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가족건강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17	이경선 (2009). 학교 부적응 학생의 적응유연성 발달 요인에 관한 연구 : 성지대안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18	이경숙 (2008). 정신질환자의 극복력, 자아존중감 및 가족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19	이경애 (2010). 아동의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 자아탄력성 및 형제 유무의 중재효과.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20	이경옥 (2006). 문제해결자 부인의 회복력에 관한 연구 : 근거이론접근. 한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21	이경은 (2012). 중년기의 스트레스와 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22	이경탁 (2010). 기능적 결손가정 중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23	이경희 (2010). 집단미술치료가 비만청소년의 비만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24	이경희 (2008). 시설보호 청소년의 탄력성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625	이광섭 (2013). 운동선수의 역경극복을 통한 회복탄력성 형성과정. 한국체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26	이금옥 (2008). 유아탄력성·가족탄력성·지역사회탄력성에 대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인식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27	이길 (2011). 재한 중국유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28	이나영 (2008). 청소년의 자기결정성 동기 유형에 따른 학업성취와 자아탄력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29	이난영 (2012).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자아탄력성과 또래관계와의 관계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30	이동하, (2011). 초등학생의 또래집단지위별 정서조절능력 및 자아탄력성의 차이 분석.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31	이명순, (2013). 아동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32	이명주 (2007).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증상과 부적응 : 자기개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6(2), 429-448
633	이명환 (2010). 청소년 유도수련에 따른 자아탄력성 및 스트레스대처 비교분석.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34	이문희 (2012). 성격 감정에 기반한 행복증진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 탄력성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35	이미애 (2012).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레질리언스가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동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36	이미연 (2006).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소 탐색.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37	이미자 (2010). 초등학교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과의 관계 및 조절효과 탐색.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38	이미화 (2011). 사회적 지지가 장애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39	이민선 (2012). 중, 고등학생의 운동실천행동과 회복탄력성의 관계분석.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40	이보미 (2011). 청소년의 또래관계 질 및 자아탄력성과 정서지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41	이상 (2011). 적응유연성 및 사회적 지지가 중국 농촌 류수(留守)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42	이상경 (2013). 우울증 환자의 리질리언스(Resilience)와 자기 효능감, 대상관계, 기질 및 성격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43	이상균 (2007). 청소년의 종교성숙도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가정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44	이상미 (2008). 심리적 가정환경,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남녀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관계.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45	이상미, (2009). 정신지체아동 아버지의 가족탄력성과 가족적응에 관한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46	이상옥 (2005). 초등학생의 시험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 : 자기 탄력성의 중재효과.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47	이상준 (2008). 부모간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의 다차원적 탄력성. 인간발달연구, 제15(1), 95-113
648	이상준 (2008). 위협집단에 대한 사회복지실천과 탄력성이론. 사회과학논총, 14(1), 109-129
649	이상준, 남영옥 (2008).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임파워먼트가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5(2), 63-82
650	이상준 (2005).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탄력성과 보호요인.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51	이선아 (2004). 소년소녀가정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 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52	이선애 (2004). 만성질환아동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53	이선영 (2008).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학교생활 적응 및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54	이선정 (2007). 중학생의 비합리적 신념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55	이선주 (2010). 고등학생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과 또래관계 기술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56	이선화 (2007).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57	이성 (2006). 학업중단 비행청소년의 심리적 성장환경, 문제해결능력 및 자아탄력성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58	이성애 (2010).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청소년의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가족탄력성의 매개 및 조절역할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59	이성훈 (2011). 긍정심리치료에 근거한 집단상담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력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60	이성휘 (2009). 빈곤가정 아동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및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61	이소영 (2007). 아동의 사회적 지지·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62	이소영 (2008). 학대경험이 아동의 학교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63	이소훈 (2011). 학급단위 사회적 기술 향상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사회적 기술, 자아탄력성,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64	이수경 (2013). 좌식배드민턴프로그램이 지체장애인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65	이수기 (2008).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집단 상담의 효과.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66	이수기 (2011). 유아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 성, 연령, 다문화가정 변인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67	이수기, 문병환 (2011).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5(6), 259-274
668	이수련, 이정화 (2010). 유치원 교사의 경력에 따른 소진과 자아탄력성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0(6), 51-65
669	이수연 (2008). 결혼이민여성 가족의 스트레스가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70	이수정 (2012). 자아존중감 증진 캠프훈련이 학습부진아의 자아존중감과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71	이수현 (2007).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 자아탄력성, 시험불안 및 학교적응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72	이숙영 (2010). 가정환경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 학업스트레스, 정신건강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73	이숙희, 황순택 (2007). CCQ 자아탄력성 척도와 자아통제 척도의 구인 타당도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26(4), 1057-1071
674	이순열, 이순철 (2011). 탄력성이 운전스트레스와 교통사고 위험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3(1), 193-205
675	이순옥 (2009). MMTIC을 활용한 자아성장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76	이승아 (2009). 청소년의 애착 유형, 탄력성과 상담에 대한 기대 간의 관계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677	이승재 (2013). 주짓수 수련자의 회복탄력성 차이분석.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78	이승현 (2008). 맞벌이가족을 위한 탄력적부모되기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79	이승현 (2009). 자아탄력성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성취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80	이승훈 (2012). 삶의 만족도,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이 고등학생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81	이승희 (2012). 후천성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지각된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가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82	이시원 (2009). 호스피스 대상자의 희망과 극복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83	이신숙 (2011). 청소년의 학습탄력성요인이 학습적응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5), 1-28
684	이신숙 (2013).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이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85	이신영 (2010). 부모의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 :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86	이쌍이 (2011).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87	이아라 (2013). 환경의 위협요인 수준에 따른 인지행동 상담 프로그램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88	이아름 (2013). 자아탄력성 프로그램이 부모미양육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89	이안영 (2006). 시설거주 청소년의 삶의 의미, 신체상, 자존감 및 이타성과 탄력성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90	이애경 (2012). 청소년의 비행과 성격강점, 심리 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 : 낙관성, 탄력성, 억압적 대처유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91	이연규 (2011). 장애인생활재활교사의 자아탄력성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가 서비스질에 미치는 영향. 삼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92	이연숙 (2006). 초등학교의 방과 후 활동프로그램 참가와 자아탄력성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9(3), 511-528
693	이연실 (2012). 유아의 탄력성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94	이연희 (2013). 유아의 회복탄력성과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95	이영래 (2007). 애착·자아탄력성이 중학생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96	이영만 (2012). 초등학교 여교사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 초등교육연구, 25(1), 191-214
697	이영면 (2013). 인문학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98	이영미 (2007). 사회적 지지 지각과 자아탄력성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99	이영분, 이연실 (2012). 유아의 탄력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8(3), 437-465
700	이영숙 (2013). TA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증진과 적응에 미치는 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01	이영아 (2011). 여성의 완벽주의 성향과 우울에 미치는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6(4), 517-530
702	이영아 (2011). 통합미술치료가 대학생의 회복 탄력성, 취업 스트레스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

	과.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03	이영애 (2013). 승마프로그램이 시각장애 중년여성의 골반변위, 족저압, 요부근력 및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04	이영주 (2012).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와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05	이영화 (2008). 청소년의 성격특성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06	이예승 (2004). 청소년의 학교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 여자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07	이옥형 (2012).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1), 29-57
708	이운성 (2013). 유아교사의 정서노동, 자아탄력성, 직무만족도에 관한 구조모형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09	이원진 (2012). 청소년의 성격특성과 자아탄력성 및 학교적응.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10	이유미 (2008). 인지적 대인관계 문제해결 훈련이 결손가정 초등학생의 문제해결력, 자기효능감 및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11	이윤수 (2013). 학교폭력 피해자 회복과정과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공격성과의 관계 연구. 백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12	이은경 (2006). 암 환자의 극복력 영향요인.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13	이은영 (2012). 아동과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과 또래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14	이은영 (2009). 아동의 생활스트레스와 보건실 이용빈도 및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15	이은정 (2013). 산림휴양자원의 유형과 이용특성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16	이은정 (2013). 자아탄력성의 정서 및 인지 유연성이 적응과 적극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17	이은희, 손정민 (2008). 가족탄력성이 만성질환아 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7, 95-120
718	이은희, 옥정희 (2012). 결혼이민여성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과 가족탄력성의 매개 효과 비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2), 197-215
719	이인성 (2008).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교우관계가 학교적응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춘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20	이인열 (2012). 수형자의 성인애착과 심리적 탄력성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21	이인혜 (2008). 청소년이 인지한 가족탄력성과 학교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기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22	이임덕 (2012). 특수교사의 회복탄력성, 낙관성, 긍정적 환상과 심리사회적응간의 관계 : 중·고등학교 특수학급담당 특수교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23	이임숙 (2006).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변인들 간의 관계 :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증.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24	이자형, 채명옥 (2011).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건강증진행위 실천. 간호과학, 23(2), 1-9
725	이장섭 (2008). 영적 안녕감,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장애아동부모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26	이재성, 문영경, 최형임 (2012).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1(2), 233-246
727	이재술 (2008). 시설생활 청소년의 학교탄력성과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28	이재영 (2012).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회복탄력성,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조직몰입 간의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29	이재용 (2011). 지적장애아 가족의 가족탄력성 특성.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30	이정란 (2012).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31	이정란 (2013). 자기자비, 자아탄력성 그리고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32	이정아 (2006). 중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33	이정오 (2012). 국내 남자 투어 프로 골퍼의 회복탄력성과 바운스백 능력의 관계.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34	이정운 (2010). 아동의 가족건강성 및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만족도의 관계.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35	이정은 (2010).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부모의 또래관계 관리전략과 청소년의 또래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36	이정이 (2012). 한부모가정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또래관계 및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37	이정하 (2006). 잠재적 중도탈락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 향상을 위한 통합적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38	이정현, (2013). 특수학교 교사의 심리적 소진 및 직무만족도와 회복탄력성의 관계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39	이정희, 조성연 (2011). 보육교사의 소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시설장, 동료교사와 가족의 사회적지지. 아동학회지, 32(1), 157-172
740	이종남 (2013). 자폐성장애아동가족의 긍정적 인식과 가족의 적응 연구 :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41	이종선, 강민철, 조현주 (2012). 외적 속박감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 부정적 정서의 매개효과 및 정서대처 탄력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31(4), 883-905
742	이종열 (2007). 실업계 남자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 가족기능, 사회적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43	이종하 (2012). ADHD 아동의 학교적응 인과모형에 관한 연구 : 어머니 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44	이주송 (2013). 중학생의 방과 후 스포츠 활동참여에 따른 회복탄력성 및 잠재비행의 차이.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45	이주연, 지명원 (2012). 감정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역할갈등, 자아탄력성 및 이직의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6), 191-200
746	이주원 (2008). 자아탄력성과 학업전략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상위인지전략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47	이준기 (2011). 학업중단 청소년의 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48	이준석 (2013). 운동선수 자아탄력성 개념 구조와 재할 선수 심리상태의 관계. 한국체육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49	이지민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개방형 의사소통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50	이지연, 황순택, 이수경 (2001). 한국아동인성검사(KPI-C)의 자아탄력성 척도(ERS) 타당도 연구. 정신건강연구, 20, 213-225
751	이지연 (2006). 발달장애아동 형제자매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52	이지원 (2009). 역할놀이를 활용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53	이지윤 (2008). 한부모 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과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 대처능력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54	이지은 (2013). 어린이집의 조직문화와 교사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55	이지은 (2009). 타로활용 자아탐색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탄력성 증진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56	이지현 (2012). 만 5세 유아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의 회복탄력성의 경향 및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57	이지희, 박성륜, 엄정호, 이지혜, 이채연, 윤계호, 이상민 (2012). Connor-Davidson 탄력성 척도의 구인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24(3), 555-571
758	이진숙 (2008). 시설보호 아동의 내적 통제소재와 행동문제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29(6), 1-14
759	이진아 (2007). 한부모 가정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와 사회적지지 및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60	이진오 (2008). 청소년의 여가활동 참가에 따른 자아탄력성이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61	이진욱 (2010). 가족탄력성이 산재장애인의 장애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62	이진화 (2013). 장애형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비장애형제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 한양사이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63	이진희 (2012). 그림책을 활용한 표현활동이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64	이창훈 (2012). 청소년의 스포츠클럽 참여 신념과 신체적 자아효능감이 자아탄력성 및 분노표현양식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65	이춘하 (2011). 가정의 위험요인, 자아탄력성 및 대처방식간의 관계 - 대처방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66	이하나 (2006).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의 표현 및 갈등과 대인불안의 관계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67	이하나 (2009). 조손가정 아동의 적응유연성과 사회적 지지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68	이한솔 (201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사회적 지지와 자녀의 탄력성 및 유아교육기관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69	이향숙 (2012). 집단미술치료가 장애형제자매를 둔 비장애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70	이혜리, 조한익 (2005).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개발. 한국청소년연구, 16(2), 161-206
771	이혜리, 조한익 (2006).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8(2), 353-371
772	이혜리 (2007). 청소년의 역경과 긍정적 적응 : 유연성의 역할.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73	이향례 (2013). 알코올 의존 부모를 둔 자녀(ACOA)에게 나타나는 부모와의 애착, 하나님 이미지 및 적응유연성 연구 : 기독교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74	이현경 (2012). 지각된 부모의 공감능력이 후기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75	이현엽, 강성록 (2011). 한국군의 스트레스, 무망감,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탄력성의 중재효과. 한국군사학논집, 67(1), 143-164
776	이현주 (2011).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가족건강성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77	이현주 (2012). 군장병의 자아탄력성과 부대 적응도의 관계 :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78	이현희 (2012).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탄력성 증진프로그램 구성 및 평가.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79	이형태 (2011). 고등학생의 영성과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80	이혜선 (2011). 다문화가정 부부의 가족탄력성과 부부적응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81	이혜숙 (2008).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태도성숙도 및 학교생활적응도와와의 관계.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82	이혜영 (2011). 병사들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군 생활 적응의 차이.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83	이혜진 (2012).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84	이호진 (2011). 부모의 음주, 가족기능, 자녀의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85	이후승, (2003).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지각한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 지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86	이희만 (2009). 가출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역경.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87	이희선, 선우현정 (201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청소년 자아탄력성,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관계 : 청소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49(6), 109-122
788	이희운 (2011). 기혼중년남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스트레스 인지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89	임갑임 (2012).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문화변용 유형과 아동의 적응유연성 수준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90	임경순 (2009). 고등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침례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91	임경이 (2008). 모녀애착의 세대전수와 성인 미혼 딸의 자아탄력성.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92	임경희 (2010). 감사성향과 자아탄력성이 초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교육논총, 47(2), 101-118
793	임병숙 (2004). 결혼가정 중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학교사회환경적 보호요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94	임상희 (2005).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95	임선모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96	임성균 (2012). 중학생 방과후 체육활동 참여자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97	임소희 (201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 예측모형 : 심리적 외상-회복력 통합모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98	임순선 (2013). 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긍정적 발달의 통합모형개발. 대구한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99	임아람 (2011). 청소년의 탄력성과 성격 강점간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00	임유미 (2007). 이혼 여성 한부모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01	임은경 (2013). 가족기능성,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가 학령 후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02	임정숙 (2006).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와의 관계.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03	임진영 (2005). 놀이치료 대상 아동의 개인적 변인 및 자아탄력성이 치료관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04	임창현 (2012).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 행동이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 부하의 상사신뢰와 회복탄력성 작용을 포함한 분석.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05	임형신 (2008). 일반고와 특목고생의 자아탄력성에 따른 학업적 자아개념과 정서의 차이. 가톨릭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806	임혜경 (2013). 건강장애 학생의 자기관리 능력과 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07	임희수 (2011). 만성정신분열병 환자 가족극복력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08	장경희 (2010). 가족건강성과 공격성간의 관계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또래관계기술의 조절효과.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09	장명희 (2006). 청각장애 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10	장미희 (2011). 가족탄력성이 성인 발달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 관여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11	장수미 (2001). 알코올중독자 가족의 가족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개입모형 개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1, 53-77.
812	장순미 (2013).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이 휴대폰 과다사용 정도에 미치는 영향. 국제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13	장순정 (2002). 청소년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적응유연성 및 비행성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14	장승욱 (2009). 적응유연성과 청소년 문제음주. 사회과학논총, 28(1), 289-306
815	장영수 (2008).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자아탄력성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16	장옥란 (2006). 낙관성 증진 집단상담이 중학생의 낙관성, 대인관계 및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17	장용주 (2006). 장애아동가족의 가족탄력성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18	장은량 (2012). 탄력성과 대처 유연성이 외상경험자의 자살행동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19	장은옥, 이승희, 박수란 (2010). 부부갈등과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 탄력성을 매개로. 정서행동장애연구, 26(4), 23-42
820	장지현 (2007). 아동의 스트레스와 우울/불안, 긍정적 정서 사이에 자아탄력성과 대처양식이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21	장진아 (2006). 부부갈등이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부모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22	장태숙 (2007). 그림책을 활용한 표현활동이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우울성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23	장한별 (2013). 규칙적인 수영 운동이 성인들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24	장희숙 (2001). 정신병리를 차단하는 요인으로서의 탄력성. 한국심리학회지, 14(1), 113-127
825	장희정 (2011). 도예작업 중심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26	전경애 (2010).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소에 미치는 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27	전경하 (2012).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28	전소은 (2009).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29	전아영 (2006).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애적 성격특성 및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남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30	전영이 (2008). 향암요법을 받는 암 환자의 치료과정 극복력 : Q 방법론적 접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31	전용호 (2007). 가족탄력성 이론에 기초한 장애아동 가족지원방안. 논문집, 25, 495-519
832	전우경 (2013).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33	전유진 (2006).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가족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모·부자가족의 비교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34	전은희 (2008). 어머니-자녀 상호작용과 유아의 탄력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35	전인경 (2009). 탄력성의 국내 연구 동향 : 탄력성의 영향을 받는 변인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36	전임순 (2004). 아버지 실직가정의 가족관계가 중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37	전정선, 윤양진 (2010). 남자 중학생의 댄스스포츠수업 참여가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 변화에 미치는 영향. 교과교육학연구, 14(4), 681-698
838	전정숙 (2011). 간질성 수반 장애 뇌성마비 아동 보호자의 귀인 성향 및 가족탄력성의 관계 분석.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39	전지경 (2011). 미혼 커플관계 탄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검증.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40	전혜선 (2013). 청소년의 부적응적 사고와 자아탄력성 및 공격성의 관계.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41	전혜영 (2007). 알코올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탄력성 증진 방안.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42	전희숙 (2007). 초등학교 고학년용 자아탄력성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43	정계숙, 김미정, 하은실 (2012).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7(1), 73-97
844	정규석 (2011). 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안녕감 간의 관계. 학교사회복지, 20, 103-121
845	정대영, 홍화진 (2011). 장애아동 형제자매와 비장애아동 형제자매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아탄력성, 정서지능 및 심리적 안녕감 비교. 정서·행동장애연구, 27(2), 33-57
846	정동화 (1997).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의 탄력성. 교육문제연구, 9, 205-223
847	정미경 (2010). 노년기 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 상실경험과 자아통합감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48	정미숙 (2005). 척수장애인 가족의 스트레스와 적응에 관한 연구 : 가족적응유연성 요인의 상호작용적 원충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49	정미영 (2011). 지적장애아 부모의 가족회복력 증진과 안심모형에 근거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50	정미영, 최은영, 공마리아 (2011). 지적장애아 어머니의 가족회복력 실태조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0(2), 329-352
851	정미현 (2003).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52	정선경 (2012).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의 극복력, 스트레스 및 자가간호의 관계.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53	정선미 (2008).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갈등과 학교생활 부적응의 관계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54	정선용 (2012). 아동의 내·외향성,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55	정선주 (2008). 새터민의 적응유연성과 직업의식이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56	정성근 (2008). 초등학생의 가정폭력경험과 자아탄력성이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57	정소희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자아탄력성, 학업능력지각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58	정수연 (2010). 가족탄력성에 기초한 원예치료가 장애아동 가족의 가족적응 향상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59	정승기 (2007).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병영스트레스와 군범죄성향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60	정애리 (2008). 고등학생이 지각한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18집, 139-160.
861	정영례 (2009). 조손가족아동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안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62	정영민 (2011). 만 5세 유아의 성별에 따른 탄력성과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63	정영숙 (2011). 장애 학생의 여가생활이 심리적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0(3), 93-111
864	정영숙, 이현지 (2009). 발달장애아 가족의 교육태도 및 양육경험 유형이 가족회복력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8(3), 85-103
865	정영은, 채정호 (2010). 역경 극복의 새로운 개념, 리질리언스(Resilience)의 평가 척도. 신경정신의학, 49(1), 50-57
866	정영제 (2013). 가정·학교폭력 피해경험 유무에 따른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 대인관계능력, 자아탄력성의 영향 구조 분석. 선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67	정원조 (2011). 기독교인의 종교정향과 신앙성숙도 및 자아탄력성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68	정유진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분노조절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69	정윤희 (2009). 대학생의 애착유형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심리적 탄력성의 차이.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70	정은옥 (2006). 심리적 탄력성 척도의 타당화.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71	정은희 (2002). 현실오법 집단상담이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72	정인숙 (2007). 적응유연성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학교적응 및 스트레스 대처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73	정준성 (2008). 아동의 창의성과 적응유연성 및 안녕감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74	정준영 (2012).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아탄력성 프로그램의 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75	정지연 (2007). 고등학생의 애고그램 유형, 스트레스, 자아탄력성간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76	정지은 (2010). 청소년의 자기애, 완벽주의 및 가족탄력성이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77	정태희 (2001). 탄력성과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 산학연구소논문집, 21, 117-138
878	정현주 (2009). 자폐성 장애아동의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적응과의 관계 :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동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79	정현주 (2012). 청소년의 부-모애착 관계와 자아 탄력성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80	정혜옥, 이옥형 (2011). 초임 유아교사와 경력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1(3), 31-53
881	정효선 (2007). 학생청소년이 인지한 사회적 관계요인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82	정희윤 (2012). 무용 전공 고등학생의 회복탄력성이 비만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예술 고등학교 무용전공 학생들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83	제성태 (2013). 학교환경과 진로성숙도가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전문 해기인력 양성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84	조경서, 남기원 (2011). 유아의 행복감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5(4), 161-178
885	조경숙 (2012). 대학생의 적응유연성신념과 구직효능감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86	조계연 (2007).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가정환경(부모의 양육 태도, 가족건강성) 및 문제행동 간의 관계.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87	조규필 (2005). 청소년쉼터가 가출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청소년쉼터의 개입기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88	조미영 (2011). 절도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부-자녀간 애정유대가 또래동조성과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89	조민아, 이정화, 송소원, 장석진 (2010). 교사의 발달 단계에 따른 교사 효능감, 적응 유연성, 심리적 소진의 차이. 교원교육, 26(1), 93-111
890	조민정 (2012). 놀이치료자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91	조민혜 (2009). 공개입양가정의 가족 레질리언스가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92	조삼순 (2011). 일 지역 초등학생의 정서·행동 문제와 적응유연성.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93	조성미 (2012). 청년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인지요인, 사회적 지지 및 리질리언스의 인과적 관련성.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94	조수현 (2013).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또래애착이 1년 후의 우울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95	조순중 (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 생활적응과의 관계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96	조안나 (2009). 부부갈등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97	조영란 (2012). 초등영재의 탄력성 및 학교 태도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25(3), 159-180.
898	조윤미 (2013). 주의집중성 기질,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 및 가족지지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99	조은아 (2010). 웃음요법이 유방암 환자의 우울, 삶의 질, 극복력, 면역반응에 미치는 효과.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00	조은하 (2012). 영성지향 평화교육활동이 유아의 우울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01	조은향 (2009).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관계에서 긍정 및 부정정서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02	조은희 (2007). 대안학교 청소년이 지각한 자아 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03	조계희 (2012). 가톨릭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신앙성숙도와 행복감, 자아탄력성 및 직무만족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04	조경란 (2007). 교육복지서비스가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05	조춘범 (2009).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 275-292
906	조혜련 (2009). 가족탄력성이 뇌졸중환자 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07	조혜수 (2005).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부모 애착,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학생생활상담, 23, 57-81
908	조혜숙 (2012). 중·노년기 부부관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의 조절역할.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09	조혜정 (2002). 빈곤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특성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10	조희주 (2012). 해결중심 독서치료가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11	좌문경 (2009).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12	좌현숙 (2010). 빈곤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영역간 종단적 상호관계 : 심리, 사회, 학교 적응영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13	주석진 (2011). 청소년이 지각한 학업 및 부모관련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8(11), 61-83
914	주소영 (2008). 아동학대와 탄력성의 관계에서 인지기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15	주소영, 이양희 (2011). 청소년용 탄력성(Resilience)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18(4), 103-139
916	주소영, 이양희 (2012). 청소년 잠재비행, 부정적 자동적 사고, 탄력성(resilience)의 관계에서 교사애착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19(8), 103-142
917	주정현 (2011).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 및 자아탄력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18	진성진 (2013). 중학생의 방과 후 스포츠클럽 참여에 따른 가족탄력성과 학교스트레스.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19	진애선 (2007). 중학생의 탄력성 요인과 학교적응 간 관계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20	진연화 (2009).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21	진혜민 (2007). 빈곤가정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22	진희찬 (2010). 초등학생의 태권도 수련과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한국체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23	차경숙 (2012). 암 환자의 불확실성과 극복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24	차영선 (2011). 카미유와 폴 클로델의 천재성과 열정 : 광기에 대처하는 심리적 탄력성. 한국프랑스학논집, 75, 219-241
925	차유림 (2012). 부모사별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 : 적응유연성 관점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26	차은주 (2010). 인문계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 학업적 실패내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27	차주연 (2002). 청소년의 강인성과 적응유연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28	채경숙 (2012).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및 문제해결능력의 관계.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29	채명옥 (2005). 만성질환아 가족의 기능 회복력 측정도구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30	채숙희 (2007).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교육연구논총, 28(3), 149-167
931	채호숙 (2008).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학업적 실패내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32	천미영 (2010). 조손가정 아동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33	최경자 (2007).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34	최계화 (2011). 강점기반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적응유연성과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35	최금란 (2012).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진로결정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36	최난영 (2011). 부모의 낙관성 및 유아의 낙관적 믿음과 유아의 탄력성.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37	최미경 (2008).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또래지위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38	최민경, 김종남 (2010). 청소년의 자기에 성향과 대인관계 문제 사이에서 탄력성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5(4)
939	최마을 (2007). 대학생의 적응유연성신념이 대학생활의 적응과 스트레스 조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40	최병준 (2007). 고등학생의 형제 구성 형태와 성역할정체감 및 자아탄력성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41	최봉순 (2010).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마음공부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42	최소빈, 양지수 (2012). 예술고 무용전공자의 자아탄력성이 무용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기록학회지, 24, 169-185
943	최수미 (2008). 폭력노출리질리언스(Resilience)가 폭력노출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44	최옥희 (2013). 적응유연성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학습부진아의 학습된 무기력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45	최용재 (2013). 특수학급 교사의 교직 적응 탄력성 척도 개발 및 타당성 분석.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46	최용현 (2013). 배드민턴 선수의 회복탄력성 비교분석.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47	최은경 (2009).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가족의 극복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48	최재석 (2012). 중학생의 방과 후 체육활동 참가가 회복탄력성과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49	최정민 (2010). 노인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 : 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4, 233-252
950	최정주 (2009). 가족탄력성이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51	최정향 (2013).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부·모·또래 애착과 자아탄력성 비교.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52	최지영 (2008).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친구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53	최지원 (2013). 자아탄력성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54	최지현 (2009). 정서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55	최진아 (201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탄력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56	최진희 (2011). 가족탄력성이 후천적 장애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남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57	최차숙 (2002). 가족 탄력성과 비장애 형제의 긍정적 태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58	최태은 (2007). 가출청소년의 적응유연성(resilience)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59	최현경 (2007). 뇌성마비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60	최현진 (2009). 정신장애인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61	최형석 (2013). 청소년의 운동몰입과 리더십 생활기술 및 학교적응유연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62	최혜선 (2006). 도형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63	최혜숙 (2012). 통제소재와 자아탄력성 그리고 스트레스가 긍정 및 부정 정서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64	최희정 (2009). 가족탄력성이 정신장애인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능력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65	최희정 (2011). 중학생의 학교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에 대한 자아탄력성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966	팡잉 (201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가족환경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67	관무경 (2012). 초등 영재 학생의 학업적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메타-인지 전략의 매개효과.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68	하경선 (2008).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및 부모와의 애착이 중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69	하명선 (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70	하재은 (2013). 생활지도원의 사회적 지지와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정서지능 및 자아탄력성 : 세 변인의 관계.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71	하현주 (2007).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72	한경은 (2006). 아동의 학대경험과 자아탄력성이 외상후 스트레스증상 수준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73	한경진 (2011).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74	한미라 (2003). 알코올중독자 부인의 극복력과 사회적지지, 영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75	한상철 (2006). 보호요인 강화 프로그램이 고위험군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효과. 교육심리연구, 20(1), 119-136
976	한상철, 김관희 (2012).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의 자정능력 향상방안 : 적응유연성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1, 121-146
977	한승희 (2010).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인터넷 게임중독 위험성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78	한애경 (2009). 가정폭력피해 이혼여성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79	한영 (2012). 중국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80	한영민 (2010). 대학생의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81	한영여 (2012).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낙관성과 생활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긍정적 착각의 매개효과.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82	한정아 (2013).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학교행복감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83	한현아 (2007). 가정의 위험요인,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84	한현주 (2012). 영화만들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효과.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85	한호성 (2007). 자기조절의 주요변인으로서의 자기통제력과 자아탄력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86	한희 (2013). 중학생들의 자아탄력성과 성취동기 및 자기통제력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87	한희진, 윤미선 (2009). 청소년의 휴대폰 과다사용에 대한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영향력. 교육문제연구, 34, 81-100
988	함계주 (2003). 에고그램이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89	허미정 (2012). 가족기능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90	허선윤 (2010). 집단치료놀이프로그램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내면화 장애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91	허숙영 (2013).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미결정 및 진로성숙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92	허에스터 (2012). 가족기능과 학교적응유연성의 관계에서 자기결정성이 미치는 영향 : -서울시 교육복지지원 중학교를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93	허원석 (2012). 중학생의 방과후 체육활동참여유무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94	허윤영 (2012). 부모상실감을 경험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대인관계만족도의 관계 : 한부모 가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95	허정선 (2003) 가족의 애착,귀인양식 및 자아탄력성이 표출정서(Expressed Emotion)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96	허정희 (2008).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 및 자아탄력성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97	허지연 (2004).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또래관계 및 촉진적 의사소통 능력간의 관계 .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98	허태연 (2008).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의 차이.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99	현은민 (2008). 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이 여성 한부모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효과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3(4), 59-84
1000	홍경해 (2011).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원중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01	홍미란 (2010). 부모-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이 청소년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02	홍성경 (2006). 극복력(resilience) 개념 개발 : 암 환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03	홍수정 (2011). 학령기 아동의 경제수준과 학교적응 관계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04	홍승희 (2009). 지적장애 특수학교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및 심리적 소진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05	홍영희 (2013). 사회복지사의 회복탄력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06	홍은숙 (2006). 탄력성(resilience)의 개념적 이해와 교육적 방안. 특수교육학연구.. 41(2), 45-67
1007	홍정남 (2007). 알코올중독자가 지각하는 가족탄력성이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08	홍정애 (2007). 가족치료놀이를 적용한 가족탄력성 증진프로그램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09	홍정하 (2009). 가족레질리언스가 장애아동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10	홍하나 (2010).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11	황동섭 (2013). 알코올중독자 가족의 스트레스와 가족적응에 관한 연구 :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위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12	황성국 (2013). 커플 탄력성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커플 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13	황승미 (2013). 장애유아 통합교육기관 교사의 회복탄력성 분석.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14	황신덕 (2004). 상사의 리더십 및 상사에 대한 신뢰와 구성원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아탄력성 (Ego-resilience)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15	황영신 (2005). 내적 발달자산 증진 프로그램이 여자고등학생의 내적 발달자산과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16	황윤미 (2010). 아토피 피부염 아동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증진을 위한 가족탄력성 프로그램의 효과.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17	황지현 (2013). 엄증성 장질환 장루 보유자의 우울과 극복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18	황춘옥 (2012). 알코올중독자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 단주군과 음주군의 비교. 남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19	황홍구 (2010). 목회자 부인의 적응유연성에 관련된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 평택대학교 박사학위논문.